

미추홀 살아지다3

미추홀,  
안부를 묻다

미추홀시민 8인의 구술 인터뷰

사  
2020

# 목차

발간사 4

들어가며  
2020년 시민기록단 활동의 의미 8

미추홀 시민 8인의 구술인터뷰



“함께 가꿔가는 미추홀”  
- 구술자 : 이혜숙 16



“깊이 볼수록 자세히 보입니다”  
- 구술자 : 정지선 30



“이웃과 함께 하는 삶”  
- 구술자 : 김순욱 44



“내 속의 나”  
- 구술자 : 김용경 56



“나는 행복합니다”  
- 구술자 : 조용희

66



“두 번째 삶”  
- 구술자 : 표기자

76



“미추홀구에 도움이 되고 싶은 주민입니다”  
- 구술자 : 고영준

92



“나의 지난날 영화 이야기”  
- 구술자 : 허경구

102

겨울이 지나가면,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계속된다.

# 발간사

희망찬 한 해를 기약하던 연초부터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가 찾아와,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은 멈춘 것만 같습니다. 그동안 당연시하던 삶의 방식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뉴노멀'의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는 지난 방식을 답습하기보다는, 서로의 삶의 태도를 맞대어 현명한 삶의 방향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변화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안부를 묻고 싶습니다.

미추홀학산문화원은 코로나-19로 문명사적인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한 올 한 해를, 서로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세상을 맞이해야 하는지 그 대안을 모색해보는 다양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학산마을영화’는 미추홀의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이 시대를 어찌 살아내고 계시는지 그 삶의 현장을 담았고, ‘학산포럼’은 코로나 이후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생태적 완충성과 실천 방안에 대한 담론의 장을 열었습니다.

‘시민창작예술제 학산마당극놀래’는 미추홀 주민들이 모여 코로나 재난의 경험을 공연예술로 승화시킴으로서 공감과 위로, 도전과 용기 등을 선사하는 공동체 예술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살아가는 미추홀 주민의 일상을 인터뷰와 수필, 그리고 그림일기로 담은 마을지 〈미추홀 살아지다3 - 미추홀, 안부를 묻다〉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지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미추홀 시민 8인의 구술 인터뷰를 엮어낸 〈삶〉, 그리고 제 1회 학산백일장을 통해 미추홀 주민들이 기록한 수필과 그림일기를 엮어낸 〈일상〉 두 권으로 구성했습니다.

지금울 살아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이 곧 역사입니다. 미추홀학산문화원은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기록하여 2020년의 미추홀의 살아있고, 사라지는 변화의 역사를 기록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지역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를 모아내고, 정리하는 작업은 시민공동체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미추홀구 지역문화를 풍성하게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가면, 어김없이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계속되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미추홀구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위로를 나누고, 서로 간의 연대를 통해, 현재의 삶을 지켜내고, 미래로 함께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2020.12.

미추홀학산문화원장 정형서

2020년 시민의학교

활동의 의미

# 들어가며

미추홀구 학산문화원에서는 2020년 미추홀 시민기록단을 모집하여 '기록 심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이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으로 남기고자 "구술채록"을 중심으로 기획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록관리(아카이빙)의 이해', '일상과 지역공동체 아카이빙의 의미'를 기본으로 해서 구술사의 의미에 대하여 참여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인터뷰 방법은 물론이고 인터뷰 결과를 기록으로 만들어 놓는 방법론을 담았고, 실습과 워크숍을 거쳐 시민기록단 상호 모니터링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맞이하면서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다. 교육프로그램의 시작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게 되었고, 교육 또한 대면모임을 할 수 없어서 비대면(온라인)모임으로 진행하였다. 다행히 상황이 조금 좋아졌던 시기에는 부분적으로 대면모임을 할 수 있었으나, 상황을 살펴가면서 진행하느라 프로그램을 매주 할 수는 없었다. 더욱 어려웠던 점은 당초 계획대로 시민기록단이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것이 어려워진 것이다. 2개의 조로 나누어 4~5인의 시민기록단이 활동을 하고자 했는데, 여러 사람이 함께 다니

는 것은 물론이고, 조용한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시민기록단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할 때 도저히 올해는 인터뷰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그렇다고 서로들 소중한 시간을 모아 학습과 실습을 통해 구술인터뷰를 배웠는데,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었다. 결국 대안으로 강사((협)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손동유)가 시민기록단을 인터뷰함으로써, 미추홀 주민이기도 한 시민기록단의 삶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한편, 인터뷰어에서 인터뷰이로 역할은 바뀌었지만, 실제 구술인터뷰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로 했다.

시민기록단 활동가들은 사전질문지를 공유하고, 답변을 준비하고, 동의서를 작성한 후 인터뷰에 응하여 구술하고, 스스로 인터뷰 내용을 녹취문으로 만들고, 상세목록 등 부대 구술 기록물을 작성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에 정성껏 참여해 준 분들은 다음과 같다. 고영준, 김순옥, 김용경, 이혜숙, 정지선, 조용희, 표기자, 허경구 총 8명의 활동가들이 완주하였다. 한계가 많은 상황이어서 본인과 가족 이야기 소개, 미추홀에서의 지역 활동, 코로나-19로 바뀐 일상, 앞으로의 바람 등을 소재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투명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인터뷰어를 마주한 시민기록단 활동가들은 다소 낯선 모습이었으나, 이야기가 시작되면 이내 오래 지낸 사이처럼 마음을 열고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특히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 작은 책으로는 모두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애정을 담고 있었고, 지역에서의 활동을 이야기 할 때는 힘이 넘쳤다. 활동가들은 아쉬운 점이 있는 지역의 이야기를 할 때도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솔직하게 이야기 하면서 저마다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로 인해 코로나-19상황에서의 미추홀은 움츠리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있었다. 그저 먼 미래의 바람이 아니라, 지금 나와 이웃의 일상과 우리 지역공동체를 이렇게 바꿔나가고 싶다는 다짐들이었기 때문이다. 활동가들이 살아온 여정은 모두 달랐다. 현재의 상황도 천차만별이었다. 모두가 미추홀이 고향도 아니다. 인생의 변곡점마다 그러그러한 자기만의 사연을 가지고 지금까지 걸어온 이 시대의 소시민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표현은 다르지만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시민기록단이 조별로 구술인터뷰를 준비하는 모습

“미추홀은 내 동네이다. 나와 이웃의 삶터다. 우리는 공동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고통과 절망을 주는 것만은 아니었다. 미추홀의 감염병을 겪으면서도 방역수칙을 지키는 일이 나와 내 가족만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환기해 주고 있다. 위기에 맞서 지혜를 발휘하는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그 미래를 설계해 주고 있다.

혹자는 주민들의 일상 인터뷰를 회의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잘 준비되고 단련된 연구자들의 내용 깊은 인터뷰는 그것대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시민들이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는 공동체의 구술인터뷰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삶의 내력을 진솔하게 나누어 소통과 공감을 늘려나가고, 지역에 대



구술인터뷰 준비를 위해 질문지 작성을 논의하는 모습

한 지나온 길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반추하면서 시민들이 살고 싶은 지역의 내일을 그리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구술원형을 살리고자 하였으나 충분히 그렇지 못하여 정형화된 책 한권으로 그 목소리를 세상에 내놓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2020. 12.

(협)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미추홀, 안부를 묻다 : 삶

# 미추홀 시민 8인의 구술 인터뷰

“함께 가꿔가는 미추홀” \_ 구술자 : 이혜숙

“깊이 볼수록 자세히 보입니다” \_ 구술자 : 정지선

“이웃과 함께 하는 삶” \_ 구술자 : 김순옥

“내 속의 나” \_ 구술자 : 김용경

“나는 행복합니다” \_ 구술자 : 조용희

“두 번째 삶” \_ 구술자 : 표기자

“미추홀구에 도움이 되고 싶은 주민입니다” \_ 구술자 : 고영준

“나의 지난날 영화 이야기” \_ 구술자 : 허경구



## 함께 가꿔가는 미추홀

- 구술자 : 이혜숙(온마을학교 활동가, 1973년생)
- 면담자 : 손동유
- 면담일시 : 2020.9.18.(금) 오전 9시
- 면담장소 : 미추홀학산문화원

## 함께 기쁘기는 미추홀

###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시는지요?

저는 용현동에서 마을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벽화작업을 주민들하고 하거나 아니면 아이들하고 그 ‘온마을’이라고 학교 밖 프로그램이 있어요.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수업들이요. 공부에 관련된 건 아니고, 학교 수업에선 경험할 수 없는 것들 그런 수업들을 외부에서 기관·단체나 저처럼 개인이 구청에다가 아이들하고 이런 이런 수업을 해보고 싶다고 하면 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작업하는 수업시간인데, 원래 3월 보통 중순에 아이들 개학하고 한 1, 2주 후면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1기 수업을 하고, 2기, 3기까지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기관·단체가 아니라서 2기까지 수업을 하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속 멈춰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올해는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니까 미뤄지다가 갑자기 7월 달에 시작이 된 거예요. 코로나가 심해지기 전에 일단 시작하자. 그래서 저는 아이들하고 벽화작업을 하는 수업을 신청을

해서 하고 있는데, 중간쯤 갔는데 또 다시 유행이 되서 멈춰 있다가 지난주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이번 돌아오는 이번 주부터 월요일부터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죠. 왜냐하면 3주를 쉬었으니까. 그동안 해야 될 거를 2주에 다 몰아서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하고 있어요. 벽화는 낮은 높이만 그리는 게 아니라 일정한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참여할 수 있고, 키 작은 친구는 하단 부위 색칠하고 키 큰 친구들은 위에 칠하면서 참여하고 있죠. 이번에 스무 명 모집했는데, 두 명이 중간에 포기를 해가지고 지금 열여덟 명이 하고 있어요.

### 스스로를 마을활동가라고 소개하셨는데요...

사실 마을활동가가 무슨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 뭐가 정형화한 게 아니잖아요. 아마 다른 구에서도 하는 걸로 아는데 미추홀구가 제일 빠르다고는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한 일 년을 투자해서 길게 수업을 계속 들었거든요.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활동이라던가 아이들과 하는 함께하는 활동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수업들이 계속 있었어요. 작년에 같이 이수하신 분이 서른 몇 분이 넘어요. 굉장히 긴 호흡의 수업이었는데, 봄, 여름, 가을 한 삼 십사 차시 인가 들었는데 굉장히 길었죠. 퍼실리테이터 수업도 있었고, 마을 역사 관련한 것도 있고, 탐방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는 수업도 있었는데 다 이수했어요. 기본적으로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마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스스로 이제 생각

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주는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마을 활동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 경우에는 아이가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온마을학교에 참여하는 걸 보니 좋은 프로그램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책 만들기 봉사를 몇 년을 했거든요. 하다보니까 ‘그 온마을학교를 나도 우리 동아리 분들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 나름대로 주위에 친한 분들하고 같이 동화책 만드는 프로그램 하고 비슷하게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2016년도부터 했죠.

### 시민기록단에 참여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용현동으로 작년에 이사를 했지만, 그 전에 주안 3동에 살았어요. 결혼해서 거기 산 지가 17년이 넘었는데, 그 전까지 제 기억 속에 거주지는 항상 아파트였던 거예요. 결혼하고서는 주택에 살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좋았어요. 위 아랫집 신경이 안 쓰이니까 그래서 단독 주택이 너무 좋았는데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주를 하고 나서 너무 금방 헐리는 거예요. 애들 아빠가 거기서 어릴 때 살다가 중간에 이제 근처로 집을 지어서 이사하면서 살던 집은 다른 사람한테 세를 주었다가, 결혼하면서 리모델링해서 들어갔거든요.



온마을학교 벽화활동 모습

그러니까 한 40년, 그러니까 어렸을 때 기억이 있는 집이고, 연세 많으신 동네 분들도 다 계신데 정말 순식간에 다 해체되는 것처럼 주민들 다 흩어졌어요. 연락처를 주고 받기도 했는데, 따로 연락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없어져 버린다는 게 아쉽더라고요. 제 17년의 기억도 흑~ 없어지고, 그 마을에서 저도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게 다 그냥 흑~ 사라지니까 그런게 좀 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 작년에 그런 류의 다큐멘터리가 꽤 나오더라고요. 기록에 대한 다큐멘터리요. 또 그 때 미추홀학산문화원에서 판화작업을 했어요. 동네가 사라지기 전의 모습을 단체 판화로 남겼는데 그걸 보면서

‘남기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민기록단에 작년에도 참여하고 올해도 참여하는 거고, 글 씨만 있는 기록보다 중간중간 삽화가 조그맣게 들어가 쥐도 보기에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뷰라는 거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야 되는 거고, 듣는 입장이니까 제가 잘 모르는 이야기 이런 거 들으면 재밌을 거 같아요. 한 분 한 분이 그 어쩔 그렇게 다 다르면서도 가치 있는 삶을 사시는지...

### 그간 미추홀학산문화원에서의 활동은 어떠셨나요?

처음 문화원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게 지금 고1인 큰 딸이, 세 살, 네 살 됐을 때였어요. 여기 프로그램 중에 미술관, 박물관 이런 데 가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버스를 하나 대절해서 엄마랑 아이들이랑 함께 가는 거였는데, 연회원 등록을 하고, 적은 금액을 부담을 하고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했던 거 같아요. 그게 아이한테도 좋고 저한테도 되게 좋더라구요. 그때 시외로 나가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다른 일들도 있고, 둘째 낳고 이러면서 못 오다가 둘째가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서 다시 여기 오게 된 거거든요. 아이들이 크면서 진짜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저는 아이를 학원에 막 돌리진 않았거든요. 가능하면 집에서 보육하려고 그랬고 유치원도 다섯 살부터 시작하고 그 전까지는 제가 다 보육을 했으니까요. 근데 집 가까이 문화원이 있으니까 공연도 있고, 전시도 있고 아이들을 꼭 많은 돈을 들여서 가르치는 게 꼭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집 가까운데 문화원이 있어서 그런 문화적인 거 접하는 게 너무

가까워지잖아요. 그리고 해마다 프로그램이 달라지잖아요. 노래를 한다거나 춤을 춘다던가 이런 프로그램들에 아이들이 계속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아마 훨씬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게 도와주지 않았나 싶어요.

### 코로나 19 상황에서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요?

제가 요즘 작업실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딸아이는 이제 고등학생이라 그래도 자주 학교를 가요. 아들 같은 경우는 학교 컴퓨터실에서 아예 수업을 들으러 가거든요. 정기적으로 그냥 아침에 학교 가듯이.. 자기가 가고 싶은 아이들만 계속 갔었어요. 학교 가서 컴퓨터실에서 인터넷 강의 듣고 간식도 점심도 다 주시니까 그래서 그냥 아들은 큰 차이 없이 갔어요. 근데 긴 시간 수업하는 건 아니지만, 갔다 와서 이제 저는 작업실에 있으니까 작업실로 오기도 하고 아니면 합기도 학원을 다니는 데 심하지 않았을 때는 학원에도 정기적으로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근데 저학년 아이들은 엄청 힘들었을 거 같아요.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애를 하던 일을 멈추고 온전히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어렵고, 제 주위에는 공방을 운영하거나, 강의를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 더 그런거 같아요. 저희들끼리 이야기 하는 것 중에는 줌(Zoom) 같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전문적이거나 고가의 도구를 구입해야하는 경우는 어렵겠지만, 그림 그리는 경우에는 종이랑 연필이랑 지우개만 있으면 되니까,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시도해 볼라고 해요.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동창모임 아직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밴드에서만 소식 주고받고 올해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정말 가까운 사람들, 동네 분들만 같이 보죠. 왜냐하면 동네에서 뻘히 아는 사람들끼리의 교류는 위험할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이 외부사람을 자꾸 만나야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아는 사람들만 자꾸 만나게 되더라고요. 뱅글뱅글 먹는 곳에서만 먹고.

### 미추홀구 주민으로서 지역 정체성을 느끼시나요?

저는 서울에서 출생해서 어릴 때 인천으로 왔어요. 학익동에서 몇 년 살다가 석바위 쪽으로 이사를 했고요, 제 기억 속에서는 계속 아파트예요. 지금 미추홀에 와서 살면서 동화책 봉사를 하고, 마을에서 활동을 하면서 지역에 대한 정체성이랄까 그런게 생기더라고요. 그 전에는 내가 인천에서 오래 살았으니 뭐 인천 사람이네. 미추홀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미추홀 사람이네 이런 생각을 별로 특별히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니깐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미추홀구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마을활동가를 양성하기 시작한 게 좀 빠른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 차원에서 우리 구 쪽을 벤치마킹을 많이 했더라고요. 시에서 수업이 있던, 회의가 있어서 가면 미추홀구 분들이 숫자도 많아요. 활동도 길게 하신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부심 같은 것도 생기더라고요. 미추홀구가 그렇게 한 거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서였을 거 같아요. 요구가 많으니까 구청장님들도 호응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시민들이 참여하는 게 내 아이를 키우는데 꼭 비싼 학원에 보내

고 그렇게 키워야 되느냐. 내가 우리 애한테 뭘 가르칠 때, 우리 애한테 그림 가르치듯이 옆집 애도 가르치고, 뒷집 애도 가르치고 그래서 같이 가르쳐 보고 싶은데, 돈을 좀 많이 받자니 그렇고, 그 대신에 이걸 지원을 받으면 애들한테 무료로 해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하는 생각들이 모여서 지금까지 발전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요구가 많았던 거 같아요. 그리고 미추홀구에는 위치도 좋고 큰 공원도 있고, 주변에 대학교까지 있으니까 이사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동네로 이사 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대학교 있다는 게 참 좋은 거 같아요, 공원 역할도 하고, 인하대가 좋은 게 비행기가 있잖아요. 여느 공원하고 또 느낌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이런 일도 있어요. 요즘 애들은 어릴 때부터 영어 이렇게 배우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니까 대화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외국인들을 보면 대화 시도는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대학교에 가서 교환학생들하고 대화를 하는 걸 하다보니까, 많이 자연스러워지는 거 같아요. 오늘도 언니 두 명하고 이야기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상 깊게 갖고 있는 기억들을 소개해

###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만화를 되게 좋아해서 그림도 많이 그리고 학원도 다녀봤는데, 창작을 하는 면에는 자질이 좀 부족한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졸업하고 이십대 초반부터 이상하게 그림에 관련된 일을 계속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건강이 좋은 편이 아니어서, 출퇴근은 내 체질이 아

닐가보다 일찌감치 접고 재택근무를 했어요. 주로 일본에서 만든 만화책을 우리나라에서 판매할 수 있게 정서적으로 다른 부분들을 작업하는 일을 했어요. 옛날에는 기모노 입은 장면 같은 게 책에 등장을 못 했고, 의성어와 의태어가 많은데 이런걸 우리말로 바꾸는 역할 같은 걸 한 거죠. 저는 운이 좋은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그림을 좋아한다고 해도 직업으로 삼지 말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림을 좋아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게 돈까지 되니까 되게 운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그림 시작할 때, 선뜻 동의해 주셨어요. 저희 언니 오빠들 다 있고, 언니가 그때 고3인가 그랬는데, 아빠가 “너 뭐 배우고 싶다는 거 하나 못 가르칠 만한 상황은 아냐!” 하시면서 흔쾌히 학원에 다닐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한국강관이라는 회사를 한 30년쯤 근무하신 분이예요. 퇴직하시고도 경비일도 하시고 성실하게 사신 분이죠. 강관회사라는게 용광로를 꺼뜨릴 수가 없어요. 24시간 계속 애는 켜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꺼지면 애를 다시 타오르게 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드니까. 아버지가 일주일은 낮 근무를 하시고, 일주일은 밤 근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언니 오빠들은 중·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엄마도 맞벌이를 하셨는데, 아빠랑 자랑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아버지하고 언니 오빠가 알고 있는 아버지하고 다른 종류의 사람인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아빠가 너한테는 그랬단 말야?” 엄청 엄하신 아버지로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만 다정한 아빠였던 거예요. 그러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을 생각하면 맨날 눈물이 나요. 뇌출혈로 돌아가셨는데 마치

막 식사를 아버지랑 했어요. 아무도 없는데 아버지랑. 야간 경비를 가실 때 있었는데, 저는 초저녁에 데이트 약속이 있는 주말이었는데 아버지가 같이 밥 먹자고 해서 먹었어요. 아버지가 새벽에 동료분하고 라면 끓여서 말아서 드실 수 있게 밥을 조금만 싸달라고 하셔서 싸 드렸어요. 그걸 들고 나가시는데, 아버지가 신발을 신으시면서 난간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상하게 자꾸 머리가 어지럽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 괜찮으시냐고?” 그랬더니 조금 이따가 “어. 이제 괜찮다!” 그러면서 인사를 나눴죠. 근데 정말 이상한 거예요. 데이트 약속 시간이 정말 30분도 안 남았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 있잖아요. 막 들떠가지고 화장도 해야 되고 옷도 갈아입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되게 멍기적거렸어요. 그리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준비를 하면서 오빠 언니한테 막 전화를 돌리고 그리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다시 왔어요. 119가 바로 와서 병원으로 이송한다고, 병원으로 가시라고 그래서 다시 전화를 돌리고 병원으로 갔죠. 뇌출혈이셨는데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가지고, 의사가 손도 거의 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쓰러진 바로 다음날 돌아가시고 장례를 정신없이 치렀어요. 나중에 티비에 나오던데 뇌출혈 전조증상을 조금만 알았어도 그렇게 보내드리지는 않았을텐데 싶어요. 그때 아버지 연세가 60대 초반이었는데, 내가 조금만 알았어도 그렇게 허무하게 안 가셨을 거 같은데, 너무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언니 오빠들 다 시집, 장가 가서 따로 사는데 내가 아버지 어머니랑 살면서 왜 신경을 못 썼을까? 마음속에 계속 남더라고요. 아버지는 처음에 고향인 충남의 공원묘지에 매장

을 했었어요. 엄마가 딱 10년 후에 돌아가셨는데, 엄마는 화장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부평에다 모셨어요. 그랬다가 형제들끼리 의논해서 두 분을 합장을 해서 부평에 모셨어요. 올해는 명절날 거기도 못 가네요.

###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요?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뭐 사회적으로 큰 업적을 남기고 그러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래도 제법 열심히는 살아가고 있죠. 음... 행복한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올해의 제 1순위가 제 스스로의 행복이었거든요. ‘나는 나로서 행복하다’였어요. 올해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행복하더라구요. 올해 그거 처음 느꼈어요. 저는 사실은 코로나가 그닥 나쁘지만은 않았거든요. 평소에는 아이들 키우면서 봉사하러 다니면서 이러면서는 그림을 그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본의 아니게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저만의 시간을 내서 그림을 그려서 행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저를 기억할 때 “아, 그분은 그냥 행복해 보였어” 라는 걸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은마을학교 활동 모습



은마을학교 활동 벽화 작업 모습



벽화 활동 작품



## 깊이 볼수록 자세히 보입니다

- 구술자 : 정지선(마을활동가, 1979년생)
- 면담자 : 손동유
- 면담일시 : 2020.9.25.(금) 오전 10시
- 면담장소 : 미추홀학산문화원

## 근이 불수록 자세가 보입니다

본인과 근황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런 거를 잘 못해서 정지선이라는 이름만 말하지 딱히 저를 표현하는 수식어를 붙이지 못합니다. 주변에서 저에 대해 말해주는 것을 들으면 저에 대한 인상은 ‘뚝 부러질 것 같다. 까칠할 것 같다.’ 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몇 번 만나서 같이 일해 보면 ‘꼼꼼한 거지 까칠하지는 않더라’ 하면서 보기랑 다르더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 제 외모랑 성향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과 고1, 중2 아이와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서울에서 살다가 대학 진학하면서 처음으로 인천에 오게 되었어요. 인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여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친정 부모님은 서울에서 강원도로 전원주택을 짓고 이사가서 살고 계세요.

학산문화원 다른 프로그램도 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미추홀구 시민기록단이란 프로그램으로 학산문화원 프로그램을 처음

했구요. 그 전에는 아이들이 어릴 적에 가끔 공연을 보러 4층 소극장에 오긴 했습니다. 최근에 여기에 다시 왔을 때 학산문화원이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현재 도시재생분야에서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이 잘 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고, 나아가 공동체 활성화가 가능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 과정 중에 건축가와 사진가가 마을 아카이빙을 하는 작업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을 주민 구술인터뷰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하던 찰나에 미추홀구에서 보내주는 구정안내 문자에서 시민기록단(구술 인터뷰)를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알게 돼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도시재생 분야에서 활동하시게 된 배경을 소개해 주세요.

학부는 해양학과를 나왔고, 대학원을 토목공학과를 나왔습니다. 대학원 과정 중에 첫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당시 양가 어른들이 아이를 돌봐줄 형편이 안됐고, 아이는 엄마가 맡아서 키우는 것이 좋다는 말씀에 대학원 졸업은 했지만 바로 취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엔 보고서 작성과 같은 연구 활동을 재택근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은 인정받기 어렵고, 그리 재미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간간이 마을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제 전공이 오픈되게 되면서 도시재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함께 활동을 해보자는 권유가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활동한 지는 한 4년 정도 되었고, 도시재생 분야

에서의 활동은 약 2년 정도 됐습니다. 도시재생분야에서 일을 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카이빙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 것은, 사진이든 구술이든 어딘가에 기록이 남는다는 것이 새로웠습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인데 아카이빙 작업을 해서 마을 역사관 같은 것들이 남게 된다면 아이들이 고향을 다시 찾더라도 그들이 살았던 환경을 기억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개발이 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이주를 하기 전에 그분들의 이야기와 삶의 풍경들을 남기는 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은 기존 재개발과는 다르기 때문에 남기는 것은 가능한데, 현재 미추홀구의 경우엔 도시재생보다는 재개발로 가고 있어서 제대로 된 기록 없이 사라지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현재 학산문화원이 있는 곳 근처도 재개발이 확정되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곳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간간히 사진을 찍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하나 그런 기록들이 어디에 남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도시재생을 위해 공동체 활성화를 하려면 마을 주민을 자주 만나야 하는데 코로나-19의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서 주민을 만나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대면으로는 만날 수가 없으니 온라인 오픈 채팅방을 열어 의견을 서로 나

누고, 비대면 회의를 위해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민과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의 대부분이 어르신들인데 스마트 기기의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함께 하시려고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함께 화상 회의를 하셨던 어르신들이 본인들이 이런 활동도 했다는 것에 굉장히 뿌듯해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모습이 아닐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아 머리는 아팠지만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 미추홀구에서 활동하고 계신 내용을 소개해 주세요.

미추홀구 평생학습과에서 양성된 '온마디 활동가'들이 하는 마을교육 활동입니다. '온'이 '켜다'라는 뜻이고, '마디'가 '마디마디 연결'했다는 뜻에서 마을에서 우리의 공동체 의식을 켜고 마을 곳곳을 연결한다는 의미를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미추홀구 온마디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내용은 제가 살고 있는 곳 바로 앞에 '호미마을'이란 이름을 가진 작은 동네가 있습니다. 피난민들이 집을 짓고 살았던 곳인데, 주변에 아파트로 둘러쌓인 저층 주거지입니다. 밖에서 보면 마을이 잘 안 보이지만 마을을 들어가 보면 아담하고 예쁘고 깨끗합니다. 이런 마을이 밖에서는 안 보이니 주변에 사는 아이들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에 주로 사는 아이들은 골목길 문화를 느끼기가 어려운데, 가까운 곳에 존재하는 골목을 아이들이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마을 골목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것은 6년 전쯤에 그 마을 골목에서 구청 주관 하에

마을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 때 제 아이들이 참여해서 골목길에서 정말 재미있게 놀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으로 마을에 대해 좋은 인상이 있었는데 제가 마을활동가로 활동하면서 호미마을 어르신들을 만나게 되었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마을 가꾸기 사업을 통해 예쁘게 꾸미며 살아가고 있는데 막상 주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이 마을이 도깨비 나오니까 들어가지 말라는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서 매우 속상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온마디 활동가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공유했고, 그들과 함께 마을 탐방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오랫동안 살아오시다가 돌아가신 어르신도 계시고, 그 곳에서 자란 어르신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분들이 저희 프로그램에 어르신 강사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골목길에서 할 수 있는 놀이를 위주로 프로그램을 짰는데요, 첫 수업은 어르신 강사가 말해주는 호미마을 옛이야기를 듣고, 함께 골목길을 라운딩하며 골목골목에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미션 수행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 후 수업은 창의적인 골목길 놀이를 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 19 상황만 아니었으면 올해 초부터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야 시작하게 돼서 더 많이 아이들이랑 함께 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습니다. 마을 골목길 놀이라 비대면으로 하기 어려운 점도 아쉽구요.

호미마을 분들은 마을을 관광지로 개발하고 싶은 욕구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단지 그곳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듣고 싶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거주하지 않으니 너무 적막하고 조용해서 조금은 외롭다는 느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아이들이 호미마을 어르신들과 인사를 하고, 골목을 두려움 없이 들락날락 할 수만 있다면 하는 아주 작은 바람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지만, 앞에 나가서 말 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것은 다른 활동가들이 더 잘하십니다.

###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처음 시작한 계기가 있었는데요. 저희 아이가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를 경험하면서 마을에 진로 체험을 다녀왔는데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체험을 진행해주시는 선생님들 또는 마을 주민들이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리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 역시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어색하고 힘드셨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자유학기제는 계속 활성화 될 터이니, 마을에 진로 체험을 나오는 우리 아이들이 마을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성장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미추홀구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학부모 진로지원단 활동(체험처 모니터링)을 지원하여 시작하였습니다. 학부모 진로지원단 활동을 하면서 관내 중학교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친구들이 진로 체험을 하면서 저희와 이야기 나누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엄마처럼 편안해서 좋았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이 차비 정도만 제공되는 진로지원단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가장 근본적

인 이유는 미추홀구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 미추홀구에서 좋은 어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입니다.

### 살아오면서 가장 아쉬운 점과 가장 기뻐던 일을 소개해 주세요.

지금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 일과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어릴 때 집에서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었던 상황이 오히려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아쉬운 것은 4년 전에 마을에서 학부모들과 함께 공동체를 구성해서 공정무역카페를 운영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1년 6개월 만에 접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상황이 너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처음엔 공정무역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오픈한 카페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적인 문제가 현실적으로 다가와서 다들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저에게 가장 기뻐던 날은 엄마로서 가장 기뻐할 일이라 꼽을 수 있는 아이의 탄생이 아니라 제가 대학을 입학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우리 아이들에게 좀 미안하네요.(웃음) 그 이유는 당시에 제가 너무나 하고 싶었던 분야를 배울 수 있는 과에 합격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제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고2인가 고3 때 우연히 ‘백사장이 사라지고 있다’는 내용의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구조물 때문에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런 부분들이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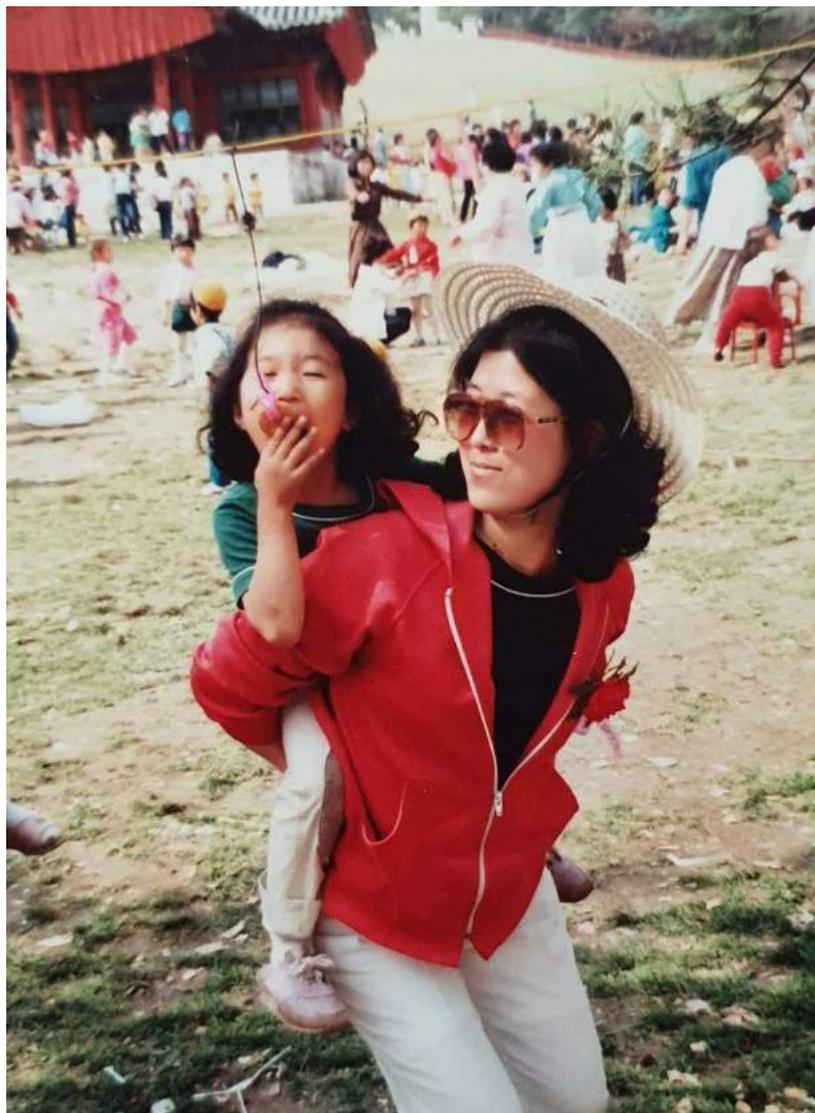
있는 것을 해결하고 싶어서 해양학과를 지원해서 붙은 겁니다. 진학해서 해양 구조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싶어서 학부에서는 해양의 전반적인 지식을 배우고 토목공학과 대학원에서 해양 구조물로 인한 토사 이동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현재는 전공과 다른 일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해양학을 처음에 하고자 했던 이유와 현재 도시재생과 마을 살리기 사업들을 하게 된 이유가 모두 사람들의 삶의 지속성에 관한 관심으로 모인다는 것을 말이지요. 다음 스텝은 어촌마을 도시재생 쪽으로 해보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 살아오면서 영향을 많이 주신 분은 누구인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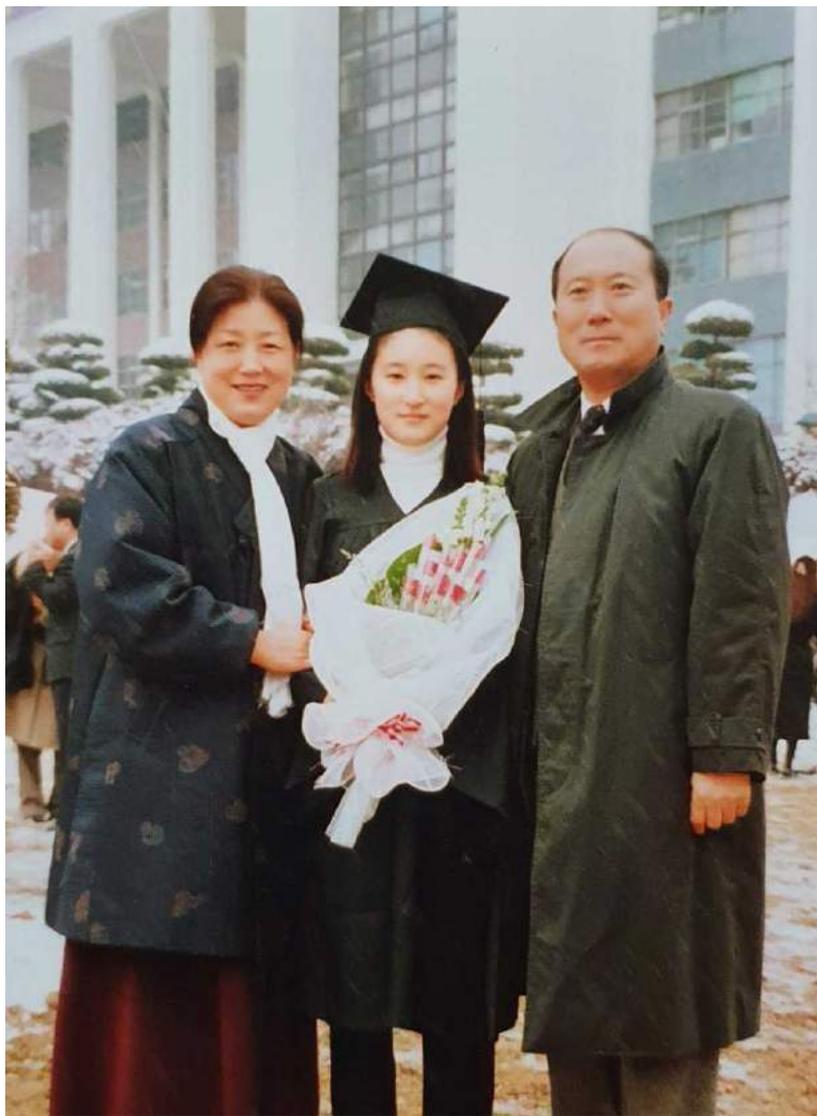
저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전형적으로 가부장적인 성향의 남편과 함께 힘들게 살아오셨습니다. 생계도 책임지셔야 했던 어머니는 본인 삶도 어려우셨을 텐데 주위를 잘 돌봐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저희 집이 서울역 뒤편인 서부역 근처여서 주변에 노숙자들이 많았습니다. 노숙자 중에서도 아이들이나 젊은 나이의 노숙자들에게 목욕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했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 사람이 들어가서 안 보일 만큼 깊은 대야를 집 앞에 놓고 노숙자가 목욕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속옷이랑 겹옷도 주변에서 구해다가 주시기도 했구요. 노숙자가 된 사람들은 구멍 가게에서 술은 사 먹을 수 있어도 목욕탕에

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말을 듣고 그러셨다고 들었습니다. 또, 같은 동네에 살았던 세 자매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었는데, 자매의 아버지가 가장 하기 어려운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서 저까지 아이들 4명을 목욕시켜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의 그런 생활 모습을 보고 자란 것들이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먼저 생각해보게 되는 가치관으로 자리 잡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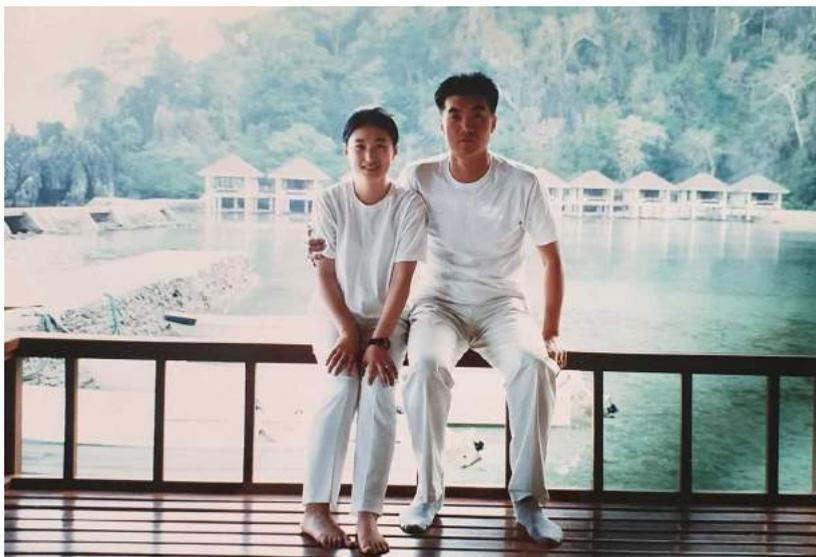
제가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 생각해 봤습니다. 워낙 스스로를 제가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성향이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게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답을 해야 하기에 최근에 들었던 감정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마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마음이 잘 맞는 팀이 하나 있거든요. 그 팀은 만나면 서로의 의견을 피력하느라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진되어 힘에 부칠 때가 많은데 막상 그 팀원들을 만나러 가려는 그 시간은 설레는 마음이 생기는 이상한 팀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팀원들에게 하니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어제 만나고 다시 오늘 만나더라도 설레고, 빨리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유치원 소풍때 어머니와 함께



대학교 졸업식 당시



신혼여행지에서 남편과 함께



아들과 함께



딸과 함께



공정무역 캠페이너 활동 모습



## 이웃과 함께 하는 삶

- 구술자 : 김순옥(평화통일강사, 1954년생)
- 면담자 : 손동유
- 면담일시 : 2020.9.18.(금) 오전 11시
- 면담장소 : 미추홀학산문화원

## 이웃과 함께 하는 삶

### 부모님과 가족 이야기부터 여쭙보겠습니다.

우리집은 재밌는 게 아버지 말때, 저도 말때, 저희 딸도 말때예요. 아버지가 올해 91세죠. 우리 어머니도 87세인데 건강하세요. 그리고 저희는 형제가 8남매예요. 충남 공주가 고향이죠. 아버지는 담배농사를 하시면서 건조해서 내는 일도 하셨는데, 아주 어릴 적 기억으로는 고래등 같지는 않지만 안채에서 사랑채로 나갔는 그런 집에 살았었는데, 한 순간에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1970년대 후반에 친구 따라서 인천에 처음 왔다가 또 서울로 갔다가 또 인천으로 와서 살고 있어요. 미추홀구에서는 동인천에 잠깐 살았고, 그 뒤로는 학익동, 문학동, 지금 용현동 이렇게 살고 있네요.

### 이전에는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활동이라기보다는, 저의 삶에서 어려운 고비를 만났을 때 제가 그래

도 나쁜 길로 가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의욕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들, 딸 아이들하고 먹고 살려고 일하다가 2000년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사고 자체는 경미했지만 뇌진탕에 전신타박상이 있어서 지금도 의사생활만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장애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 사회복지사들하고 많이 상담을 하게 됐어요. 많은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저도 장애인 인권 강사도 따냈는데, 강의는 몇 번 못했습니다.

###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죠?

어려서부터 예배당이라는 곳을 갔던 기억이 있고, 주변에서 권장을 하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도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 그냥 ‘나는 나이지만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사고 났을 때도 남들 같으면 죽었어야 되는데, 그냥 어디 하나 찢어지지도 않고 부러지지도 않고, 그런 걸 보고 견딜만한 아픔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코로나 전에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주일날 만큼은 교회에 아침 아홉시 가서 오후 일곱 시 예배 끝나고 집에 아홉 시에 오곤 했어요.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커피 찌꺼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을 때는 20킬로 정도, 평상시에도 10킬로 이상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커피밥에 대해서 나이스 미추에 나왔길래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더니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확대해나가면 연락을 주겠다 그랬어요. 지금 코로나 되면서는 정부 방침을 잘 따르고 있어서 교회에 가지 않고 있죠. 어떤 면에서는 이 코로나 상황이 ‘자숙하게 된다.’, ‘스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정말 많은 곳을 다니고 자원봉사를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돈이 목적이 아니라 제 스스로 마른 땅에 단비같이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예명도 ‘단비’라고 정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그냥 빛이 되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해서 제가 뭐 착하고 그렇진 않아요. (웃음) 굉장히 제가 좀 직선적이고 할 말 다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봉사를 하다 보니까 검찰청 안내 봉사, 경찰서 안내 봉사도 했고요, 지금은 다 스톱되긴 했죠. 그리고 2007년도부터는 인천광역시 자원봉사 상담가로 위촉되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명예 공무원’이라고 위촉을 받았는데, 지금은 ‘자원봉사 상담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봉사 활동도 한 열 두개나 하고 있죠.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대면하는 일이나 회의는 거의 못하고, 취약 계층 도시락 배달은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불만이 있었어요. 자신들을 더 신경쓰기 바라는 거죠. 근데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 없었어요. 돈을 벌려고 하면 꼭 무슨 화가 닥친다 그러면 좀 그렇고, 불협화음이 생겨서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설거지, 청소, 이런 아르바이트, 장사, 뭐.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는데, 일이 싫은 것도 아니고 또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일이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보니까 봉사활동을 계속 하게 되고, 이번에 이사하면서 옛날 받은 수료증을 보니까 참 많더라구요.



인천광역시 자원봉사 상담가 활동 모습

## 만학도로서 학교도 다니신 이야기도 들려주십시오.

제가 어릴 때 백일해를 앓아서 천식이 있어요. 환절기 때마다 거의 한 달은 발작에 가까울 정도로 기침을 하고 고생을 하는데,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하다 보니 의료 사각지대에 있었어요. 그런데 좋은 사회복지사 분을 만나서 의료보험을 유지하려면 학생이 되면 된다는 조언을 들었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쫓 했는데, 학교에 가보니 저 같은 형편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넉넉한 분들도 있고 많더라고요. 근데 학교 다니면서도 참 열정적이었고 교육감상, 교장상, 봉사상 상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대학을 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고, 신학대학에 도전했다가 실패해서 포기를 했었는데, 또 사람을 잘 만나서 사이버대학 보건복지학과를 올해 졸업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졸업식은 못했지만요.

## 평소에 미추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저에게 미추홀은 제 2의 고향이죠. 오래 살았고 잘은 못해도 미추홀구 학산학연구회 회원이 되기까지 미추홀에 대한 공부도 하고, 인문학 강좌도 들으면서 학산학 스토리텔러 강사로도 활동을 했죠. 저는 무언가 미추홀구를 위해서 또 인천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지난번에 “천영기 선생님 누가 인터뷰 하면 어떨까요?” 그랬을 때 내가 “아유, 그분은 우리가 인터뷰할 분이 아니죠.” 그랬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미추홀구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애착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 활동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분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인터뷰를 하나 하는 생각이었고, 저에게는 멘토이시거든요. 그분하고 답사도 많이 했는데,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 정말 멋있으세요. 사실 인천의 태동지가 미추홀인데, “미추홀구” 그러면 우리가 문학산을 중심으로 미추홀을 국(國)을 만들어서 비류(漣流)가 왔다는 거잖아요. 요즘에 문학산 역사관 지킴이(해설가)도 같이 하고



올해 졸업한 사이버 대학 졸업사진

있는데, 한번은 전에 부구청장 하셨던 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고향 분이라 옛날에 향우회 나가서 서로 안면이 있잖아요. 근데, 남자 분들이 한 열 명 가까이 우르르 들어오셨는데 “설명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꽤날마다 가면서 설명해 드리니까, 막 웃으시면서 “아 이 사람들, 여기가 미추홀국(國)으로 나라가 만들어진 데야.” 하면서 이야기 나누시더라고요. 미추홀구로 바뀔 때에는 제가 100프로 찬성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낮설고, 나는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굳이 바꾸나 해서 솔직히 찬성은 안 하고 누군가가 “반대 뭘 써 달라” 하면 써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천의 태동지가 미추홀인데, 인천시가 미추홀시가 됐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면서도 미추홀구로 우리가 안고 가는 거니까 자긍심을 느끼고 있어요.

## 선생님, 앞으로도 지금처럼 여러 분야의 사회활동 계속 하실 계획이세요?

이제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다보니까. 그래서 내가 과연 뭘 했나 하는 허탈감에 빠지더라고요. 사람들로 인해 상처도 많이 받았는데, 신앙으로 ‘아, 이 또한 지나가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나를 나되게, 더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경멸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그분을 바라보면서 ‘적어도 난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하는 정도 생각합니다. 원로 철학자 김형석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봤는데 당신 인생에 대해서 “30까지는 그냥 부모 슬하

에서 배우는 시기고 60까지는 그냥 돈 벌고 사는 시기고 75세까지는 뭐를 어떻게 하고 75세부터는 어떻게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70 안 됐잖아요. (웃음) 그래서 저도 뭔가를 해보려고 안전 공학과를 전공으로 편입을 했어요. 교수님 말씀만 듣고 편입했다가, 사실 돈도 돈이고 요즘 때가 때인 만큼 ‘이걸 내가 해서 뭐하나’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다시 해봐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 행복했던 기억과 후회스러운 기억

내가 제일 첫 번째로 행복한 순간은 제가 베이비시터 교육을 받을 때. 신생아실에서 실습을 해요. 2주 안 된 신생아들,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을 옆에서 함께 하는 건데. 그게 며칠이었는지 몰라요. 그 며칠 동안이 제일 행복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어학연수 갔다 오고, 우리 며느리아이를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사는 거 보면 참 행복하죠. 1년에 잘 만나야 서너 번 만났는데, 그마저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올하는 애기 돌인데도 못하고 그냥 제가 가서 잠깐 보고 왔죠.

저야 뭐 사실 기뻐던 거 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더 많았죠. 제일 힘든 건 남편에 대한 애긴데, 남편이 자기 관리를 못하면서 많은 사람들 일을 본인이 다 책임을 지는 그런 입장이 됐었고, 보증 선 우리 친정집 것도 잘못하면 다 넘어갈 그런 위기도 있었어요. 마지막 좌절 상태에서 “한 가지만 해결을 하면 될 거 같다.” 라면서 우리 동생들한테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해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하나

후회돼요. “나를 생각하거나 하지 말고 남자 대 남자로서 해줘라.” 했더니 안 해주더라고요. 그거 하나 후회하죠. 자동차 매매상을 했었는데, 사람이 착해요. 악하질 못하고 그러다보니깐 자기가 다 책임을 떠맡고 이런 상황으로 되어버린거죠. 제가 스스로 찾거나 하지 않을거 같고, 합치자고 해도 나는 지금은 무서워요. 상상하기 싫은 과거들이예요. 지금은 딸이 엄마 건강 걱정해주고 잘하고, 아들 내외가 용돈도 주고 그렇게 잘 해주는 거 받으면서 살아요. 나중에 아이들이 저를 생각할 때, 정직하게 살면서 남한테 피해 주지 않았고 열심히 살았다고 인정해주길 바래요. 남을 위해서 산다는 거는 사실 과장이죠. 어렵게 살던 중에 교회 장로님 댁에 거주하면서 은혜를 입은 적도 있고, 000회장님과 여러 분들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저를 도와주신 것도 잘 기억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장편 소설로도 모자랄 겁니다.

## 시민기록단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신가요?

제 스스로 내 생애에 대한 거를 그냥 거짓 없이 기록해서 남들이 보고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누구나 다 자기들은 열심히 솔직하게 산다고 하지만 그 내면에는 굉장히 아픔들이 많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끄집어내서 서로 좀 소통하면서 사각지대를 돌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커요. 그렇게 미추홀구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나아가서는 묻혀 있는 역사들을 찾아서 나누는 일, 좀 추상적이지만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혼자서는 아무 것도 못 한다는 거를 저는 이미 깨달은 지가 오래 됐어요. 내가 좀 앞서나가고 아이디어

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간혹 왕따 아닌 왕따가 되기도 하는데, 언젠가는 서서히 함께 하게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웃음)



문학산 정상에서



문학산 역사관 지킴이 활동 중



부모님 리마인드 웨딩 사진



부모님 예전사진



아버지와 함께 한 마지막 추억 여행



## 내 속의 나

- 구술자 : 김용경(사업가, 1957년생)
- 면담자 : 손동유
- 면담일시 : 2020.9.25.(금) 오전 9시
- 면담장소 : 미추홀학산문화원

## 내 속의 나

### 선생님과 가족분들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기계 수입을 해서 판매도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대기업 협력 업체로 1차 벤더로 20여 년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업체는 IMF 시절에도 잘 버텨왔는데, 코로나 시기에는 많이 힘들어요. 대기업에서 무조건 들어오지 말라고 차단하니까, 그 당시에는 대처 능력도 없고 어찌 해야 할지도 몰라서 1월부터 4월~5월까지는 많이 힘들었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대기업 한 곳 하고만 일하기 때문에 현금 회전이 안되서 더 힘들었습니다. 그때 여파로 아직 빚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나아졌어요. 취미로는 사진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57년 9월 3일에 천안에서 태어나서 4살 때 인천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지금은 인천 사람이죠. 아버님도 수협 일을 하셨고, 바닷가 접해서 살다 보니 바다가 익숙하죠. 고등학교 시절에는 건강이 안 좋아

서 조금 힘들었는데, 대학 생활을 하고 군대에 갔다와서 첫 직장을 그룹사에 입사를 했어요. 영업부로 발령을 내더라고요.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했는데 전자공학도들은 대체로 얌전하고 샌님들인데 영업부로 가서 거래처와 말도 해야하고, 영업 전략이나 마케팅 같은 것도 배워야 했어요. 옛날에는 그룹사에 연수원이 없어서 위탁 교육을 했는데 거기 가서 많이 배웠죠. 4년 직장생활 하다가 나와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직장 잡으면서 바로 결혼을 했는데, 저희 시대의 문화인지 제가 57년생이고 76학번인데, 제 친구들은 보통 59년생과 결혼을 하더라고요. 집사람과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첫 애가 딸인데, 결혼을 안하려 하고 둘째는 아들인데 그 아이가 좀 굴곡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면서 좀 힘들었는데, 다행히 잘 따라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국을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당시 유학 관련 브로커 사건이 터지면서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던 차에 소상공인 대표자들 모임에서 친구들 얘기가 앞으로 중국이 발전을 많이하고 실용성이 높으니 중국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것도 좋겠다고 생각해서 아이가 중국에 가게 됐는데, 1학기 마치고 방학을 해서 왔는데 보니까 철도 들고 많이 성장했더라고요. 아들이 하는 말이 어짜피 언어 배우러 간건데 HSK 자격만 따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대학 진학하고 졸업 후에 큰 회사 들어가서 중국 지사로 다시 오는건 어떨까 하는 거예요. HSK 9급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수시가 다 잘 안됐어요. 군대를 가는데 나이 들어가는 거니까 하사관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자대 배치를 받아 군생활을 인천에서 하게 됐고, 병과도 로켓 미사일 병과를 받아서 저희 회사에서 하는 일 하고 맞아요.

운이 정말 좋은거죠. 아들이 군생활을 하다가 하사관 장기를 신청 하겠다 하여 장기를 가겠다 하더라고요. 결혼을 하면 플러스 알파가 있다더라고요. 그때 나이가 24살입니다. 중사를 달면서 결혼을 한거죠, 25살에. 그런데 조금 있다가 군대에서 나오겠다 하더라고요. 중국에 가서 무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가기 전에 아빠 일을 좀 도와라고 했죠. 고등학교 때에도 아르바이트로 도와 줬거든요. 일을 해보더니 자기가 군에서 5년 동안 이것을 했다더라고요. 물론 같은 기종은 아닌데 뜯고, 조이고, 기름 치고 하는 것은 같은 거라서 오히려 군대보다는 수월하니까 자기가 이걸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 7년차 반신반의했는데 의외로 아들이 적응을 잘해가지고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사장님 이제 만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취미로 하던 사진을 다시 시작해서 하고 있어요. 회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죠.

딸 아이도 지금은 결혼을 해서 손녀가 2살인데, 다른 회사 다니는 중에 우리 회사 일을 하게 했어요. 우리 건물 1층이 사무실이거든요. 딸 아이가 결혼을 하면서 제가 2층에 살다가 딸 아이네를 2층을 주고, 저희가 4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구매, 경리 쪽은 딸 아이가 맡고, 현장하고 공장은 아들이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근데 저랑 같이 일하던 사람들은 애들 보다 한참들 위인데, 사주 자녀니까 꺾끄러울 거 같아서 아예 한 사업부를 떼줬습니다. 독립시켜서 저는 관여 안합니다. 예전에는 술자리 영업도 있고, 촌지도 있었고, 명절 때 선물 오가는 건 기본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싹 없어졌어요.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그래도

이쪽 기계 쪽이 급여는 좀 높는데 힘들어요. 지금은 옛날처럼 막 아무 때나 와서 하라고는 안하지만, 돌발적으로 기계가 죽으면 현장이 스톱되다보니까 온라인으로 공급을 하는데, 그마저도 몇 개가 죽으면 라인이 스톱이 되니까 그때는 저희가 투입되지요. 이번 추석 때도 저희 직원들이 못놀아요. 몇 명이 흩어져서 울산, 포항, 당진, 서산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들에게도 항상 하는 얘기가 “니 한명에 딸린 식구가 최소한 30명 이상은 된다, 잘해라.” 라고 하죠. 하니까 지금은 잘하고 있어요.

## 시민기록단 활동은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저는 그동안 동네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내가 살기 바빴어요. 조금 생활이 안정되면서 5~6년 전에 건물을 샀는데, 그 중계사가 주민자치위원장이었어요. 지나가다가 인사도 하고, 들어오라해서 들어가 차 한잔 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와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전에는 주안 3동으로 이사오면서 사진 봉사를 해서, 동네 일을 하자고 할 때 첩엔 거절했었어요. 그런데 자꾸 만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회가 있구나 하고 보이는 거죠. 그동안 회사, 가족,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한번 해보자 하고 시작했어요. 주민들과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한 주에 한 번씩 만나면서 시작을 했지요. 희망지 사업, 더불어 사업 등으로 이어졌는데, 더불어 사업은 40억을 동네에 지원해주는 사업이라서 더 열심히 했어요. 인천시에서 4개 동만 지원해 주는데 9개 동이 신청한 것 중에 주안 3동이 선정됐어요. 원래 올 1월 달

부터 사업을 시작했어야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미뤄지다가 7월에 승인을 받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도시재생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고 지금도 단어가 생소합니다. 그래서 희망지 사업을 하면서 인천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활동가 과정을 수료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여기 학산문화원에 오게 된 것은 3-4년 전에 사진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동아리 방을 이용하기도 하고, 관계를 맺어 오다가 학산문화원 회원가입을 하니까 새로운 소식과 정보를 보내주게 돼서 알게 된거죠. 그런데 다른 데는 넓은 대지에 주차시설도 잘 되어 있는데, 여기 미추홀구만 건물만 딱 있는 거예요. 법원 옆에 대로에 건물만 있어요. 주차도 건물 뒤편에 돈 내고 사용해야 하고 건물에 주차할 수 있는 곳은 사용한다고 막아놨고, 교통편도 좋은 것도 아니고, 동아리방도 지하에 쳐박아놔서 냄새가 나서 나빠요. 처음에는 저희가 거기에서 1년은 활동을 했는데, 냄새가 너무 나서 여기를 얻게된 거죠. 여기 학산문화원은 깨끗하잖아요. 우리 인원이 10명 미만이라서 활동하기에 딱 맞고 그래서 이쪽으로 오게 되었죠. 제가 요즘에 장애인 작가들 가르치고 있었는데, 올해는 비대면이라 강의도 못하고 있고 전시까지 준비했었는데, 어제 다 취소했습니다. 실은 올해가 3년, 3회째인데 인천문화예술회관에 전시등록을 해서 경쟁이 치열한데 다행히 되어서 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결국 취소되고 말았어요. 도록도 인쇄소 하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준비했는데 올해는 어렵게 된 거죠. 인쇄소도 예전에는 송의동 공설운동장, 지금 홈플러스 쪽 축구전용구장 그 옆 골목에 인쇄 골목이 있었는데, 이젠 다 없어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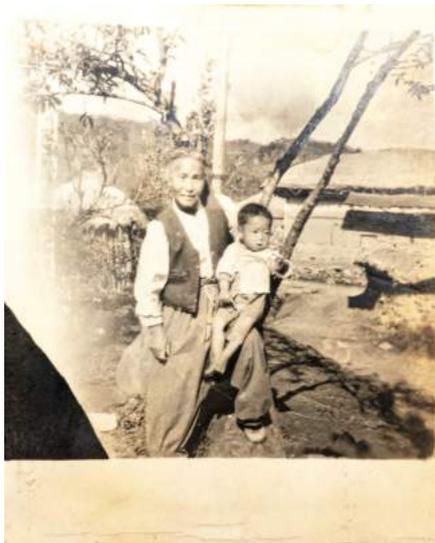
## 어려운 경험은 없었는지요?

제가 어릴 때 많이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찬밥을 안먹었습니다. 학교 점심시간 종치면 할머니가 점심을 გადა 놔주셨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돼서 사업을 한다고 할 때는 달랐어요. 도와주지 않았습니니다. 저도 사연이 있는데, 우리 아들 2살이나 3살 때 일거예요. 단칸방에 살았는데 냉장고도 없고, 전화기도 없이 살았는데, 5월 5일날 쌀이 없어서 아침에 라면을 먹으려고 하는데 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라면을 푸다가 아이가 엎어지면서 팔이 데었어요. 술먹고 많이 울었어요. 아이 팔을 보고 많이 울었어요. 아이가 창피해서 가리고 다닐 줄 알았는데, 다행히 뚜뻑하게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기특한 거죠. 지금도 가려울 때는 굵곤 하는데 그것 가지고 “아빠 왜 그랬어.” 라는 말을 안해요. 고맙지. 맘이 그렇다 보니까 그 아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밀어줬어요. 지금도 잘 한다 잘한다 하고 있고. 영업을 하러 다닐 때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았어요. 제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면 들을 거 아닙니까? 들 으면서 본인이 터득하게 했습니다. 요즘엔 바빠서 잘 못 보지만,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왔어요. 그럴때면 내가 해줄 것은 다해주겠다고 하곤 했어요. 그러나 “니가 망하면 다 망하는거다.” 그 말만 해요. “너 자식이 들어야. 처도 있고, 니 아버지, 엄마 다 있어.” 이렇게 하니까 열심히 해요.

그리고 제가 나이 40에 쓰러졌었거든요. 돈으로 살렸는데 집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죠. 스트레스와 과로로 쓰러져 걷지도 못하고, 아무 일도 못했는데 집사람이 아주 많이 고생해서 지금은 제가 재화에 성공해서

아주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아주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지요. 그 때 살던 집 앞에 승학산이 있는데 거기 올라 가는데 두 발짝 올라가다 쉬고, 그렇게 살면서 의지를 가지고 어느 정도 호전되었죠. 본가가 주안 1동, 역 앞인데 저희 집 앞에 한의원 원장님이 사셨어요. 제가 거동을 잘못하니까 본가에 와있으면 출근하기 전에 침뉘주고 가겠다 하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검사해 보면 다 정상이고, 길병원에서도 일주일 동안 입원해서 검사했는데 다정상인데 나는 힘든거야. 그러다 보니 요즘 말하는 공황장애가 온거죠. 그때 그 한의원 원장님이 조심스럽게 얘기 했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 정신과 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제가 받아 드렸어요. 주안역 앞에 있는 한동수 박사한테 가서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심할 때는 운전을 못했으니까요. 앉아 있으면 불안해서 교통법규 위반도 많이 했죠. 그런 것을 다 겪고 살아왔습니다.

미숙홍, 살아있다



2살 즈음 천안에서. 1958년 어느날



군 시절 휴가 중 송도유원지에서 아암도 가는  
길에서. 1981년



결혼사진. 1983년



인천광역시 도시재생대학 활동가 양성과정(1기) 수료식 당시



장애인 제자들과 사진 활동



## 나는 행복합니다

- 구술자 : 조용희(쑥골 마을박물관, 1963년생)
- 면담자 : 손동유
- 면담일시 : 2020.9.25.(금) 오후12시
- 면담장소 : 미추홀학산문화원

## 나는 행복합니다

###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활동하면서 제 이름으로 멘트를 먼저 합니다. “000 조용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뭐라고 했죠?” 하면서 명찰을 보여주고 “제가 제 이름을 부르면 민망하겠죠.” “지금까지 제 이름 제가 부를 일은 없었습니다.” 하고 시작하면 아이들과 웃으면서 시작하게 되죠. 또는 “제 이름을 기억 못하시면 아이큐 나옵니다.” (웃음) 저는 인천 미추홀구 도화 2.3동에 살고 있는 63년생 조용희입니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게 해주는 우리 세 남자 신랑과 두 아들 보순, 진순, 그리고 예쁜 며느리 에리, 이쁜 손녀 아란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년 에 또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추석선물 받았습니다. (웃음)

### 시민기록단 활동은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저는 지금 도화2.3동 쭈골 마을박물관에서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

습니다. 마을박물관에서는 1년에 1~2번 기획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전시회 준비를 위해 마을 어른들의 이야기, 기증하신 물품들에 깃들여진 이야기들을 기록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막연했었어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던 중 학산문화원 강좌 중 시민 기록단을 알게 되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쑥골 마을박물관은 미추홀구에 있는 마을박물관으로 2016년에 세워진 2호점입니다. 마을에 오래 살았어도 마을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옛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동네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셔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지만 요즘은 도시에서 많이 이동하면서 사니까요. 저는 10년을 한 지역에서 살았으면 그곳이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살기 바빠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내가 살고 내 아이들이 태어난 마을의 옛이야기들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아 전시하고 알려주는 곳이 바로 마을박물관입니다. 쑥골 마을박물관은 인천 미추홀구와 인천시립박물관의 사업으로 만들어졌구요, 마을주민인 큐레이터들의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추홀구에는 2015년에 토지금고 마을박물관 1호점이 처음 세워졌구요, 독쟁이 마을박물관 3호점까지 있습니다. 저는 1988년에 결혼해서 인천으로 와서 남동구 구월 1동에서만 살다가 2018년 쑥골 마을박물관 때문에 도화2.3동으로 이사 왔습니다. 살던 곳을 떠나기 싫었는데, 쑥골 마을 박물관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싶어서 마음을 바꾸었어요. 저는 미추홀구 쑥골 마을박물관을 많이 좋아합니다.

마을박물관 큐레이터들은 기획전시를 주체적으로 하는데요,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을 해야 하지 하는 기본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시민 기록단 활동이 저에게는 병행이 된다면 만족도도 높아질 거 같아요. 저는 마을의 기록도 좋지만 아직 살아계시는 시어머니의 기억, 친정어머니의 기억을 기록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활동이 뜸한 지금이 적기인거 같은데 꼭 해보고 싶어요.

### 사회 활동을 하시기 전에는 주로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결혼 전에도 학교에서 집, 직장에서 집, 결혼 후에는 집만 알고 살았어요. 그러다 큰 아들이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제가 밖에 나오게 되었죠. 처음엔 제가 관심을 갖고 있던 역사 강의만 들으러 다녔어요. 구월동에서 살 때는 집에만 있었기에 문화원이라는 곳을 접할 기회도 없었고, 문화활동에 새로운 사람들과 같이 활동하기 위해 잘 다가가지를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학산문화원도 작년에 역사 강의를 들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아직 잘은 모릅니다. 하지만 학산문화원과 축골 마을박물관 활동에 연결된 것이 많은 거 같아서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보고 싶어요.

### 코로나-19로 삶의 변화가 있나요?

올해 정말 힘들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하는 활동에 만족감도 보람도 느끼지만 집에서만 살래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올해 겪어보니까 아니더라구요. 자의적이지 않은 타의적, 사회적 분위기때

문이라 더 그런지 정말 힘들었어요. 지난 9개월 동안 최소한의 바깥 출입만 하고 살았어요. 별로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갱년기를 심하게 겪었어요. 다음 달은 끝나겠지 다음 달은 끝나겠지 하고 몇 년만의 휴식 기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무기력감도 오고 제가 몸이 차가운 사람인데 열이 많이 나니까 견디기가 무척 힘들었어요. 저의 활동이 전면적으로 중단되었지요. 또 다른 힘들었던 것은 큰 아들이 일본에 살고 있는데 10개월 동안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일년이면 2번은 오거나 가거나 했는데 언제 만나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영상으로는 자주 보지만 만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보고 싶어도 못 만나요.

### 미추홀구에 대한 평소의 바람이 있다면?

행정적인 것도 모르고 경제적인 것을 떠나서 저의 시야로만 보면, 높은 아파트들만 지었을 때 과연 지금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20년 후에 어떠한 모습이 될까? 아이들의 기억에 높은 빌딩들만 남지 않을까? 아파트만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죠. 다른 곳은 제가 잘 몰라서 모르지만 그래도 미추홀구에는 우리 학산문화원 등 시민들이 마을을 이야기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공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승기천도 복원 계획이고 인천시립박물관도 미추홀구에 옮겨 올 거구요. 미술관, 예술공원 등 문화생활 공간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을 들었을 때 미추홀구는 앞으로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 아이들과 같이 살아가고 싶은 곳으로 되지 않을까하고 생각했어요.

## 가족 사랑 한번 해주세요.

저는 서울 살았고, 남편은 강화가 고향인데 결혼해서 인천에 정착했어요. 남편을 만난 게 저에게는 굉장한 행운이에요. 저의 모든 행복의 원천이죠. 제가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분이죠. 우리 세 남자로 부터 난 행복해를 항상 느껴요. 전 아이들 아빠가 딸 하나와 아들 둘을 키웠다고 표현을 해요. 아직도 혼자 여행 잘 안다녀요. 아이 아빠랑 다녀요. 오늘도 근무시간 조정해서 데려다 주었어요. 우리 세대 남자치고는 상당히 자상한 편이죠. 예를 들면 큰아이가 89년 1월생인데요, 항상 소아과에 같이 데리고 다녔어요, 태어나기 전부터도 산부인과에 같이 다녔어요. 그 당시 산부인과에 신랑하고 같이 오는 경우가 별로 없었고, 아빠가 같이 소아과에 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둘째 아이가 4년 후 92년생인데 그때는 같이 소아과에 오는 아빠들이 더러 있더라구요. 아빠들이 육아에 관심을 갖게 된 게 그 때쯤 인 거 같아요.

## 제일 힘들었을때가 있었다면 언제인가요?

인생에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자면 저도 몇날 며칠 이야기해야 해요. 처음 아이 아빠와 만나 결혼하게 된 계기가 이 남자는 가족과 가정을 잘 살피겠구나 하는 것 하나만 보고 결혼을 했는데, 그건 너무 정확했어요. 아이 아빠와 저는 한번 인연을 맺은 사람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사돈의 팔촌까지도요. 정말 잘 맞은거죠. 저는 시댁과 집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불만 없었구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시아버님이 2002년도에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과 갈등이 생기면서 그걸로 인해

저는 충격을 받았고 내적인 갈등을 많이 하게 되었죠. 거의 한 10년을 어머니와 굉장히 힘들었어요. 남편과 아이들이 옆에서 지켜보며 그 기간을 믿고 기다려주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한테 온실 속의 화초로 살아서 별일도 아닌 것 가지고 신경쓰고 있다구 하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더한 것도 참고 사는데 힘들다고 한다고요. 고민할 일도 신경쓸 일도 아니라구요. 하지만 제 초기 결혼생활 15년을 지켜본 지인들은 제가 괴로워하는 부분을 이해하고 알아주었죠. 그 일을 겪으면서 나를 되돌아보는 계기는 되었어요. 새로운 세상을 만났구요. 저에게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었구요. 꼭 나쁘게 되지만은 않았더라구요. 지금은 시어머니를 엄마로서는 그럴 수 있다고 이해는 해요. 하지만 저한테 그러신 거는 아직도 받아들이기는 힘들어요. 저의 신조가 친정아버지에게 자랑스럽지는 못하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딸로 사는 거였어요. 시댁에 사랑받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시댁 어른들께 사랑받고 있는 모습만 보고 돌아가셔서 조금은 위안 되지만 하늘에서 보시고 가슴 아파하실거 같아 죄송해요. 다행히 지금은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잘 지내고 있어요. 그 이상은 힘들겠죠. 옛날처럼 다시 돌아가지는 못하겠죠. 그것이 안타까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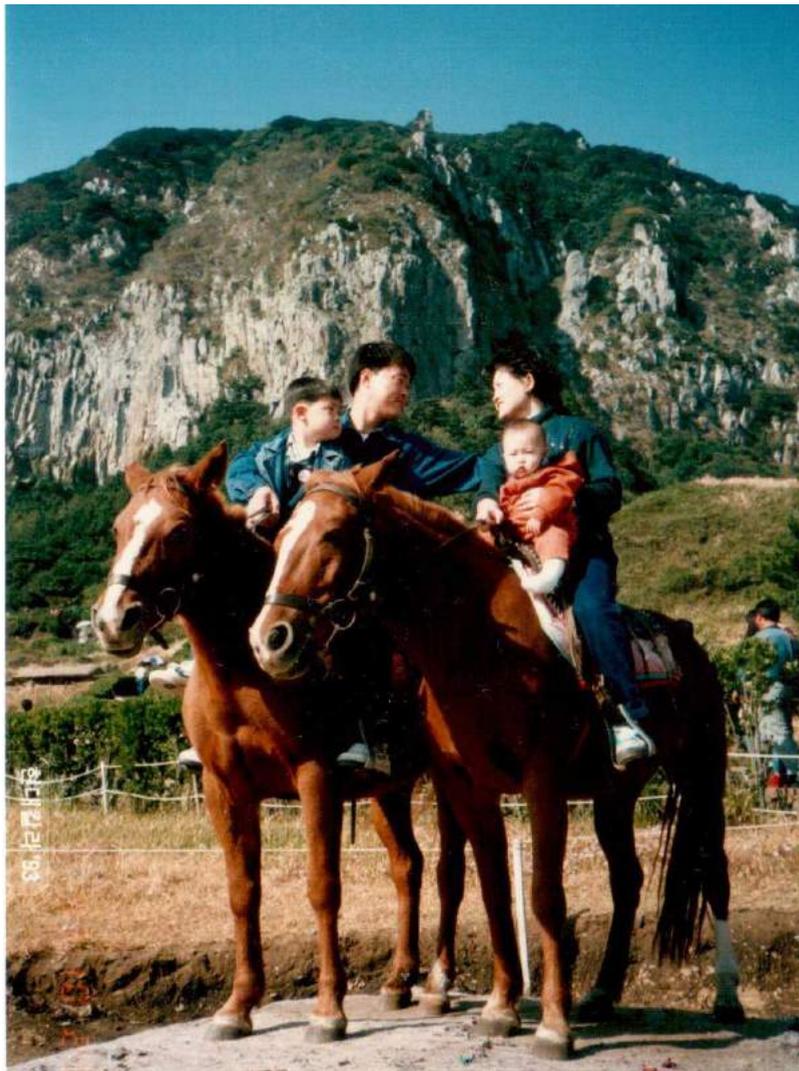
## 살면서 인상 깊게 기억되는 일도 소개해 주세요.

행복했던 순간 좋았던 순간들 전 정말 많아요. 내년엔 태어날 아이의 소식도 기쁘고요. 작년에 여행이 최근의 즐거웠던 기억 중 하나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2019년 1월 작은 아들의 세계 여행지 중 스페인이었

있어요. 아들과 20여 일 배낭 여행을 했어요. 작은 아들이 세계여행 때 갈 곳을 이야기 하는 중 스페인에 간다 하길래 엄마도 스페인과 영국에 가보고 싶다고 하니깐, 그럼 같이 여행하자고 하더라구요. 20여 일 여정이라 신랑은 못가고 혼자 가야 했어요. 몇 번이나 예행 연습을 하면서 외국어도 하나도 못하면서 용기를 냈지요. 인천공항을 떠나 중국 청진을 거쳐 독일에서 아이를 만나 스페인으로 배낭여행을 했어요. 그런 경험을 해 보니까, 국내여행을 혼자도 해볼 수 있겠다 싶었는데 아직 혼자 여행은 용기가 안나네요.

### 가족과 후대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요?

감사함을 알고 살던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래요. 사실 제가 가장 싫어했던 친정 엄마의 말이 늘 입에 달고 사셨던 “감사합니다.” 였어요. 엄마는 충분히 받아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신 거 10분의 1도 안되는 도움을 받아도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감사함을 알고 살던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는 게 아이러니하죠. 저는 정해 놓은 종교는 없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신들과 조상님들께 내 가정의 안녕함에 감사의 기도는 매일 합니다.



1993년 제주도 여행 당시



2019년 아들과 함께한 스페인 배낭여행



2019년 가족들과 함께한 호주 여행



## 두 번째 삶

- 구술자 : 표기자(자원봉사활동가, 1961년생)
- 면담자 : 손동유
- 면담일시 : 1차 2020.9.18.(금) 오전 11시 / 2차 2020.9.25.(금) 오후 1시
- 면담장소 : 미추홀학산문화원

# 두 번째 삶

선생님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하는 활동은 없었구요, 칠팔년 전에, 미혼모의 집에서 아기보는 자원봉사 했었고, 미추홀구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 활동으로 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주제로 하는 수업 한 적이 있어요.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저는 2008년에 소화기 계통의 암 경험을 했어요. 병기가 꽤 깊었던지라 죽음이 곧 내 일이기도 했었죠. 제 60년 생애서는 암 경험 전과 후로 명확히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암 경험 전에는 의사표현을 못하는 위축된 생활을, 어른이 되는 어느 시점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그 시점이 암 진단을 받은 때예요. 굉장히 큰 충격에 휩싸이면서 암이라는 존재는 무엇이며, 그 무서운 존재가 왜 나한테 왔을까를 생각하고, 공부하고 알아가는 중에, 암환우들만을 대상으로 자연치유력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교육과, 요양을 할 수 있는 가톨릭 단체를 운영하는 신부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곳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저는 가톨릭 신자예요. 오랫동안 냉담을 해오다가 암 진단을 받고, 바로 드는 생각이 하느님한테 벌 받았더라는 생각었어요. 성당으로 가기 전 가까이에 사시는 봉사자 형님한테 가서 한 말이 “저 하느님한테 벌 받았나 봐요” 했더니 그분이 “하느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 한마디가 큰 위로와 안심이 되었어요. 그로부터 현재까지 열심히 집중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몇 번에 영성체험도 했어요. 그 중에 제 교만이 살살이 다 보이면서, 하느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납작 엎드리게 되면서, 평화 그 자체가 되고 굉장히 행복하고 사랑이 많았었어요. 아마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사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어느 날은 집 앞에 산에 가서 가톨릭 서적을 읽다가 뜻 밖의 문장을 보았어요. 암에 관한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책인데, 갑자기 ‘암환자는 여태껏 살아온 것과는 정 반대로 살아야 한다.’는 글이 있는 거예요. 그 때 제가 탁 쳤어요. 나한테 내리는 지침 같았어요. 갑작스런 상황이라 그냥 놀라기만 하고 앞뒤 글은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그 짧은 문장이 앞으로의 제 삶을 결정짓게 한거죠. 제가 워낙 표현도 잘 못하고 내성적이고 조금 위축된 삶의 모습을 가졌었는데, 정반대로 살자,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다보니 지금은 의사 표현도 적극적으로 하고,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현재 제 모습에 만족을 해요. 그렇게 회복기를 거치면서 가장 먼저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죠.

## 가족 분들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남편하고 아들 하나이고 아들은 올 해 초에 결혼을 했어요. 남편하고 둘이 사는데 지금은 주말부부예요. 60대 중반인데 불러주는 데가 있어서, 아직은 현업에 있어서 감사해요.

저는 성격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태생적인 기질도 있지만.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셨는데 약간의 알코올 의존증이 있으셨던 거 같아요. 제가 어른이 되면서 드는 생각은 그 분이 그렇게 된 데에는 그 분 생애사를 두고 보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는 생각은 들지만, 술 드시면 간혹 엄마하고 다툼도 있었어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싫었고, 제가 삼남매 장녀인데요, 책임감 같은 걸 느끼면서 그런 집안 분위기를 저는 온 몸으로 다 받은 것 같아요. 나중에 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니 동생들은 저만큼 상처가 없는 거 같았어요. 아버지가 박봉이다보니 엄마가 바느질을 했는데 솜씨가 좋으셔서 너무 너무 바빴어요. 저 고등학교 때는 입시공부를 해야 하는데 밥 해먹고 설거지 등 집안일 시키는 대로 다 했죠. 언젠가 막내동생이 “언니는 왜 그렇게 엄마가 시키는 대로 다 했어?”라고 묻더라고요. (웃음) 바로 밑에는 남동생인데 엄마는 지금껏 아들만 보호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지금 84세예요.

## 미추홀에서 지역 활동을 하시게 된 상황을 소개해 주세요

결혼하면서 남편 직장이 인천이라서 인천에 살기 시작했는데요, 34년 됐네요. 2008년 암 치료 이후로 2년 정도는 신앙생활이든 치유에 집

중을 했었어요. 지금 십년이 넘었는데 중간에 활동들을 꾸준히 했었죠. 먼저 가톨릭 단체인 미혼모의 집에서 아기 돌보는 일을 했었구요, 남구 자원봉사센터의 프로그램 중 교육가 과정을 이수하고, '자원봉사활동' 주제로 미추홀구 내 학교에서 수업도 했었어요. 신양 공동체 내에서 봉사는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픈 데 뜻대로 안되며 상처도 입고, 그럴때마다 영성체험을 통해 저를 자꾸 낮추고 내려놓게 되고, 지금은 주장이든 민초든 주어지는 역할에 감사하는 마음이예요. 이러면서 웬만큼 회복이 됐다 싶어서 다시 일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 때 두 사람이 한 말이 기억에 생생한데요, 성당의 한 분은 “에그, 그 몸으로 일을 하겠다고?” 하시며 어이없어 하시는 표정을 보고 그 당시 생각은 아, 내 모습이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모습인가 보다 생각을 했었고, 또 한 사람은 고향에서 초.중.고를 함께 다녔던 친구인데, 내가 일을 다시 할까한다 하니, 그 친구가 “너 또 일하려고” 하는데, 순간 아, 이 친구야말로 진정으로 나를 생각해주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사람을 측은하게 여길 줄 알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말을 듣고, 진정성 있는 말 한마디가 어떤 한사람의 삶을 바꾸어놓을 수도 있다라는 걸 느꼈죠. 그 말 한마디의 기억으로, 저도 힘들어하는 또는 누군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 때, 진정한 마음으로 다가서려고 하고 있어요.



미추홀구 관내 학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주제로 한 수업 당시

지금은 제 주변에서 활동하고 싶어서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동대표를 하는데 즐거워요. 이전 단체 규모에 상관없이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싶어진거죠. 그렇게 늘 활동거리를 찾던 중, 제가 만족할만한 대학에 못 들어갔기에 그 콤플렉스가 심해요. 학구열이 있는데 충족이 안 된 상태이다 보니 대학원 공부는 오래전부터 염원이었어요. 그동안 미뤄오다가, 이년 전에 우연히, 아니 필연인 것 같은 생각도 드는게, 해마다, 가톨릭대학원 신입생 모집란을 보는데, 그냥저냥 넘기곤 하다가, 이년전에 ‘교회문화재’ 전공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전부터 이 전공이 있었을텐데 그제서야 눈에 들어온거죠. 바로 입학해서 작년에 마쳤어요. 세월을 살아오면서 드는 생각이 모든 일에는 때와 섭리가 있는 것 같아

요. 공부 마치고 나서도 꾸준히 구직활동이나 활동거리를 찾던 중, 미추홀구청에선가 시민기록단 모집을 보고, 더욱이 아카이빙에 관한 주제라서, 대학원에서 아카이빙 과목이 있었고, 활동 주제가 맘에 들어서 응모를 하게 됐죠.

###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소외된 이웃 불쌍한 이웃과 관련한 단체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알고 싶어요. 그것도 가장 낮은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예를 들어 인천에 '민들레 국수집' 같은 곳이죠. 오래전부터 그곳에서 활동을 하고 싶는데 아직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기관이나 단체에서 그곳에서 활동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바로 달려가고 싶어요. 저는 '사람'에 대해 많이 알고 싶어요. 우리 살아가는 일이 돈이나 명예, 물질도 아니고, 마지막으로 얻는 건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인 것 같아요. 사람 얘기를 하다 보니, 옛그제 있었던 일이 생각나는데요, 우리 아파트 동대표한테 한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미리 정리를 하자면, 제가 그 동안 지켜온 바로는, 천사같다고 생각해보던 어떤 사람을 비방하는데 마치 그 동대표가 마귀 같았어요. 근거없이 마구잡이로 그 사람을 몰아치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몸이 후덜덜거리더라고요. 고통스럽기까지 했어요. 코로나 2차 확산으로 미사도 중단되었다가, 그 날 미사가 재개되는 날이었어요. 종일 성당 갈 생각에 설레기까지 했는데, 전화 한 통화로 몸과 맘이 무거워 성당에도 못가겠다 하다가, 혹시 미사 중에 어떤 응답이 있을까 싶어 갔다가, 놀랍게도 해답을 얻고 그날 밤 많이 편안해졌고, 다음날

어떤 계기를 통해 마귀 같았던 사람이 순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사람은 그렇게 무한정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죠. 그렇게 결론이 나게 된데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작용했어요. 제가 기억하면서 행동하고 싶은 키워드는 ‘사람’이 중요하고 ‘사랑’만이 해답이다예요.

### 코로나-19로 어떤 변화를 느끼시나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우울감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 하는데요, 저는 좀 다행히도, 그전에는 경미한 우울감을 달고 살았는데, 지금 저는 시민기록단 활동도 그렇고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제가 안전 불감증이 있는건지 몰라도 성당도 가고, 아파트일도 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물론 마스크 착용하고 방역 수칙은 철저히 지키면서, 예전과 다르지 않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런 생각은 들어요. 동선이 뻗은 자주 대하는 사람들임에도 물리적 거리는 유지하려고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가까이서 얘기를 나눌 때에도 ‘저 사람 혹시 코로나 감염 됐을지도 몰라’라는 의심을 하게 될 때도 있다는 거죠.

사실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원에 대해선 각계각층에서 논쟁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코로나 초기에 떠도는 말들이, 박쥐가 매개체다 라는 말에 근거를 두고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환경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인간이 저지른 환경오염이 결국 동물들의 서식 생태계를 바꾸어 놓은 거죠. 박쥐들이 살던 서식지가 인간에 의해 훼손되니 그 동물들이 인간이 사는 곳으로 나와 전파가 되었

다라는 거죠. 하느님이 최초로 우주만물을 보기 좋은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다스리라 했는데,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하느님 말씀을 거스르는 역행을 한 거죠. 세상이 끝나게 될 수 있는 원인은 두 가지라고 말하는 견해도 있던데요, 원자핵과 환경오염. 이 모든 재앙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해요.

### 평소에 지역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인천에서 34년을 살고 있고 지금 사는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30년 째 살고 있어요. 부동산 재테크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던데 어쩔 저는 그렇게도 재테크에는 능력이 없는지 한 아파트에서 30년 정주를 하고 있고, 이 곳에서 생을 마감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한 곳에서 오랫동안 살면서도 미추홀구에 대한 애정은 특별히 없었으나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싶은 생각은 가지고 있죠. 솔직히 인천에 대한 타지역에서의 평판은 안좋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불미스런 사건 사고도 많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평가를 안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 인생에서 후회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제 성향이나 성격이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암 경험 전과 후로 구분지을 수 있다한 것처럼, 아프기 전에는 지난 일들에 대해 후회를 잘했죠. 그러나 아픈 이후로 이미 지나간 일에는 후회하지 않기로 의도적으로 노력하다보니, 그렇게 돼요. 그 과정에서 심리분석 책도 읽고 좋은

강좌 들으러 다니고, 신앙생활에 집중하며 몇 번의 영적체험도 하면서, 그러니까 그만하면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하다보니 감사하다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돼요. 정말 지난 과거는 감사하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두어달 전에 있었는데요, 또 신앙에 관한 말이라 좀 거북스러울 수도 있을텐데요, 공동체에서 수녀님이 하신 말씀이 인상 깊게 남아있어요. 음, “지나온 삶은 하느님 자비였었고, 현재는 하느님 사랑 안에서 살고, 미래는 하느님 섭리에 맡기세요” 라는 말씀이 새겨지면서 어떻게 전환이 되냐면, 이 정도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러면서 후회를 안하게 되는거죠.

## 가장 인상깊게 기억나는 순간들은 언제인가요?

우선 제 일에서는 제가 고등학교 때, 네 반으로 편성되었었는데, 한 반만 인문반이고 나머지 세 반은 상업반이었어요. 인문반이 육 십명이 넘었는데, 거의 전체 인원 중 성적순으로 인문반이 만들어졌죠. 제가 공부하는 상위권에 있었는데 일등은 한 번도 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언젠가 중간고사인지 기말고사인지에서 일등을 한거예요. 선생님이 성적을 다 불러주셨어요. 일 이등하는 아이들은 거의 정해져 있었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기적과 같은 일이었죠. 그 때 분위기가 기억에 있는데요, 일 이등하던 아이들이 내가 일등이라는 걸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썩 쓰레한 표정들이었죠. 저는 그 때 맘 놓고 좋아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릴 적 저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일등 성적표를 가지고 너무 흥만한 상태로 엄마한테 보여드렸는데, 칭찬이 별로 없으셨던 걸로 기억해요. 엄마가 속정은 깊으세요. 주변에서 하시는 말들

은 너네 부모님은 법 없이도 사실 분들이다 하셨거든요. 잔정이 없고 표현을 안하시는 편이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상처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자식을 키우는 엄마라서인지 자식 일에서 기쁨을 많이 느끼게 돼요. 저희 아이가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상급학교 진학할 때마다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음 제가 여태껏 아들 자랑을 잘 안하는 편인데요, 기뻐던 기억을 얘기하라하시니, 좀 할게요. 과학교와 서울대를 거쳐서 지금은 MIT에서 박사졸업을 앞두고 있어요. 저희 아들이 잘하긴 했지만, 유학 원서를 몇몇 유명학교에 지원할 때 MIT 합격은 솔직히 꿈에도 생각을 안했어요. 그 학교 합격을 알리던 아들의 모습이 기억에 생생한데요, 아침 먹고 거실에 앉아있는데, 아들이 천천히 걸어오더니, “엄마 MIT 합격” 하면서 아들은 그 터질 것 같은 놀라움을 좀 가라앉히는 말투였어요. 둘이 하이파이브를 하고 소리를 질렀죠. 그 날의 그 순간은 잊을 수가 없죠. 또 하나 얘기할게요. 제가 아프면서 먹을거리를 선별해서 먹는데, 그 과정에서 이용하게 된 곳이 ‘한살림 생활협동조합’예요. 사회활동도 적극적으로 하는 단체인데, 그곳의 여러 활동 분과 중에 저는 ‘농산물분과’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어느 해인가, 한살림 설립 30주년 기념행사로 생활수기공모를 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으로는 천 여편이 넘게 응모를 했는데, 저가 ‘은상’을 받게 됐어요. 십위 안에 들은 거죠. 본사에서 시상식을 했는데 무대에 올라가서 상을 받았는데 굉장히 뿌듯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암 치료 후 회복하는 과정에서 ‘영성 체험’을 하게 돼요. 그룹 성경공부를 하게 됐는데, 과제가 있어요. 성경을 읽고

문제도 풀고 하는데, 어느 따뜻한 봄날 햇살 들어오는 거실 한 켠에 앉아 성경을 읽는데, 아마 창세기였을거예요. 어느 대목을 읽는데, 거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즉, 나를 나타내는 문구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제가 하나님한테 다 들켜버린 것 같은 느낌이랄까, 하나님이 제 코 앞에 확 들어대시면서 마치 ‘난 너에 대해 다 알아’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납작 엎드리는 형국이 돼버렸어요.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톱만큼도 못 미치는 미물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제 교만과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 지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그 체험 이후로 오랫동안 행복했어요. 어떤 사람이든 다 좋았고, 누가 어떤 식의 말을 하든 거슬리는 게 없었고, 세상이 온통 평화롭고 행복했어요. 그런 행복감이 제 표정에도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예전 직장에서 함께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얘기를 하던 중 제가 많이 편안해 보인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 모습을 거울을 안봐도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되는거가 얼굴 근육이 좌악 펴지고 웃음기가 있는 그런 느낌을 스스로가 느껴졌거든요. 옛날엔 미간이 찡그러진 그런 인상이었을거예요. 속은 씩었는데 겉으로만 웃는 가면을 쓰고 있었죠. 제가 이런 체험담을 얘기하는 건 그걸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잘 살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되죠.

### 일상에서 새로운 실천을 하기 위한 선생님만의 노력이 있다면?

암 선교를 받고 죽음이 곧 내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완치되고 살면서는 두 번째 삶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여태껏 살아온

결과물로 암을 얻었잖아요, 그러니 예전처럼 살면 또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예전처럼 살지 않기 위해선 필사적으로 의도하지 않으면 안되는 거죠. 마음이 상한 일이 생기면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털어버리려고, 고개를 막 흔들기도 하죠. 옛그제도 굉장히 크게 화나는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그룹의 대표를 뽑는 일인데 제가 하기로 일단 결정이 됐어요. 근데 한 사람이 너무 반대를 하니 그 점이 너무 괴로운거예요. 왜 내가 저 사람의 의견에 굴복해야 돼? 끝탕을 많이 했죠. 누군가한테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건 부정적 에너지 소모가 상당하더라구요. 하루를 고민 고민하다가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새벽녘에 결정이 되더라구요. 내려놓자구. 남을 공격하는 그녀가 측은해 보였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자리지만 그걸 그리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버린거죠. 내 뜻대로 안 잡힐 땐, 지나가는 내 삶의 극히 일부분이다라고 생각해버리죠.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저는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어요. 선한 쪽으로 가자라는 거죠. 사랑으로. 물론 엄청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야 제가 잘 살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는 추상적이지만 구체화 될 수 있어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알아요. 저가 너무 거창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실상은 사랑으로 결론하고 실천하는 경우는 아주 적죠. 다만 신앙인으로 성경 말씀의 키워드인 '사랑'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대체로 진보적으로 살려고 하는 편인데, 진보냐 보수냐 그 개념을 떠나서 그 핵심은 '사람'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고 봐야한다 생각해요. 예를 들어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에 대해 논쟁이 많은데, 제 경우에 젠더 의식은 좀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성소수자들이 사회에서 인정을 못받고 구석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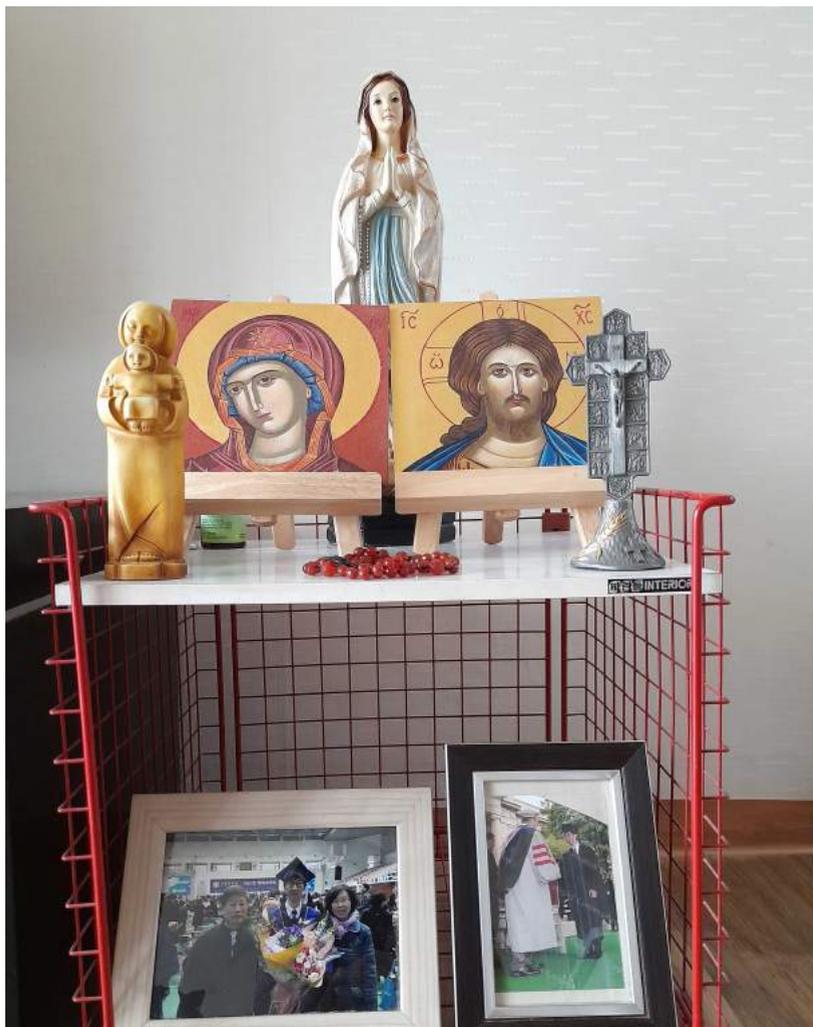
내 몰릴 때 어떤 경우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문제라서, 법의 타당성을 떠나서 사람을 중심에 놓고 생각한다면, 저는 진보적으로 바라 보는 편이죠.

### 가족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는지요?

제가 남편하고 소통이 안된다란 얘길 했었는데, 그 표현은 고상한 거구요,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었겠어요. 대화가 없다라고 한 건 포기했었다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이겠죠. 제가 남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남편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남편이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엔 별 관심없어요. (웃음) 그러나 이들은 다른데요.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잘 키우고 싶었어요. 어른이 된 아들을 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도 많이 하며 키웠어요. 그 아이가 엄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 바람은, 사랑이 많고 베풀며 사는 선량한 엄마로 기억되면 좋겠어요.



환경관리공단의 자원관리활동



인생에서 인상깊은 순간들을 모아놓은 공간



미추홀구에 도움이 되고 싶은 주민입니다

- 구술자 : 교영준
- 면담자 : 손동유
- 면담일시 : 2020.9.25.(금) 오후 2시
- 면담장소 : 미추홀학산문화원

## 미추홀구에 도움이 되고 싶은 주민입니다

선생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57년생인데 만으로 63세고, 제가 인천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여태까지 인천에서 계속 살았어요. 그래서 학교도 다 인천에서 나왔고, 지금 태어난 데가 지금 중구청 옆이죠? 관동1가. 지금 아파 동명이 바뀌었을 거예요. 차이나타운 있는 데가 북성동, 중구청 있는 쪽이 관동이 고, 조금 내려오면 중앙동 있었고, 그 밑에 또 향동 있었어요, 조그만 동네였죠. 일제시대에 구획정리를 하면서 계획도시로 만들어서 1가, 2가, 3가라고 그때 붙였어요. 학교도 다 인천에서 다녔는데 초등학교 입학은 송민국민학교였어요. 그 뒤에 동구로 이사를 왔고, 동인천중학교, 인천고등학교 나왔죠.

저는 젊어서부터 사업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패션, 옷 상점 같이 좀 했었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했어요. 오피상이라고 조그마한 무역회사. 그래서 필리핀에서 흑단(黑檀)이라는 나무 수입해서 팔기도 했었고, 까만 나무인데 굉장히 단단해요. 그 통째로 쓰면 굉장히 무거워요. 물에

가라앉아요, 나무가. 그래서 고급 가구에 무늬목을 들어앉히는데 쓰기도 하죠, 새카만 나무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쌍용양회라고. 거기서 한 십 몇 년 아마 생활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나와서 신발, 운동화, 골프화 같은 대리점을 했거든요. (웃음) 근데 오히려 저는 저 아이엠에프(IMF) 때 오히려 돈을 오히려 벌었어요. 잘 알던 사람이 큰 신발 공장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엠에프(IMF) 때 다 부도가 나잖아요. 그니까 “신용으로 가져가서 팔아라, 어차피 이거는 못 팔고 다 넘어갈 물건이니까.” 그래서 백화점에 납품을 하면서 괜찮았죠. (웃음) 남들한테 좀 미안한 할 이야기지만 오히려 저한테 전화위복이 된 상황이었고요. 그러다가 2013년에 사업을 접었어요. 딴 사람한테 넘기고 이제 ‘될 할까’ 혼자서 생각하면서 한 8개월 놀았어요. 놀다보니 정말 지겹더라고요. (웃음) 그것도 하루이틀이지. ‘아, 이거 내 젊은 나이에,’ 그때도 젊었으니까 ‘젊은 나이에 이거 할 일이 아니다.’ 난 그때만 해도 ‘등산이나 다니고 내 취미 생활이나 하면서 이렇게 한량처럼 유유자적하면 얼마나 좋아.’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나만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어디 봉사활동이라도 갈까?’ 이래가지고. 처음에 학산 선비대학이라고 저기 평생학습관에서, 미추홀구, 전에는 남구(南區)였죠, 그때는. 주민참여예산 강사를 모집한대요. 교육을 받고 강사를 한 8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강사로 활동을 하라고, 거기에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가지고 거기 지원했어요. 그래서 그날 강사증에 보니까 12월 31일이더라고요. 임명 해준 게 2013년 12월 31일 날, 마지막 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강사로도 활동

을 했죠. 나중에는 다른 데도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그때만 해도 주민참여예산이 굉장히 생소한 거였어요. 도대체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이 뭔지도 모르고, 그랬을 때니까 서부에 가서도 하고 동부에 가서도 하고. 그러고 또 인천시,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사로 있으면서 거기 강의 좀 하고. 2013년에는 주로 교육받으면서 보낸 거 같고. 또 그해, 제가 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아서 시립박물관 봉사하는 거 있어요. 뭐냐면 해설사, 유물 해설사. 그간 한 1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2013년은 교육 받으면서 지냈고, 2014년부터 봉사활동을 계속하게 됐죠. 그러면서 또, 제가 카메라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그 미디어홍보실에 시민리포터라는 단체가 있어요. 주민들 단체, 시민 홍보실에서 주관하는데. 거기 가입해서 영상 찍고 또 미추홀 인터넷 방송 올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내죠. 근데 몇 가지 활동을 했는지 저도 잘은 몰라요. (웃음)



미디어 주민강사과정 수료식 모습

## 미추홀학산문화원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처음 시작은 우선 알림방에서 보고 알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그 미디어 활동을, 요즘 주로 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박물관도 그만됐고. 또 주민참여예산도 많이 해서 임기가 다 끝나서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강의 나갈 수도 없고, 그런데, 제가 미추홀구 마을만들기위원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각 마을 돌아다니면서 기록도 하고. 그때는 카메라가 아니고 간단하게 아이패드 가지고 주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그러다보니까 마을만들기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많이 알게 되고, 또 주민들도 많이 알고. 또 하다보니까, 제 생각은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남들이 보면 별 거 아닌 거 같지만 그 사람들한테 참 소중한 기억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억들을, 처음에는 아이패드로 찍어서 영상으로

만들자, 딱 해보고, 그러니까 재밌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이런 기획이 아, 이거 또 내가 해보던 거니까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지원을 했죠. 앞으로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 계속 하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여기가 문화원이 아니고 조그만 소극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부평에도 문화원이 그때 있었어요. 근데 '이 정도 되면 문화원으로 충분하겠단, 근데 왜 안하지?' 사실 그땐 그랬었는데 지금 문화원 됐잖아요. 그니까 이런 문화원 있는 곳 자체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구 단위로. 제가 미추홀구에 자부심을 가지는 게 문화 활동이 굉장히 지원이 많아요. 우리가 좀 가난한 동네지만, 가난한 구예요. (웃음) 그렇지만 문화 쪽에 굉장히 지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에 변화를 겪으셨는지요?

처음에 우한폐렴이라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스텐트(Stent)라고요 심장혈관 스텐트(Stent)를 한 세 개 심어놨어요. 그리고 내 혈관이 조금 이상이 있어서, 제 몸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지금도 계속 약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코로나가 사실 아주 그냥 치명적이잖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그 말이 나오자마자 스스로 집에서 자가 격리했어요. 스스로 자가 격리하면서 집에서 운동도 하고 지내다보니까 그것도 지겹더라고요. (웃음) 근데 집 사람이 약국을 하기 때문에 제가 걸리면 집사람도 전파되고, 그러면 집 사람이 있는 그 빌딩 전체가 다 그냥 피해를 보잖아요. 그니까 될 수 있으면 나도 안 나가고, 아주 특별한 일 아니고, 뭐 이렇게 특별한 일 아

니면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생활하다보니까. 처음에는 뭐, 괜찮게 그냥 견디는데 한 1개월 되니까 그것도 좀 굉장히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만날 보는 게 티브이, 영화 이런 거 보고, 될 수 있으면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우선은 몸이 좀 붙었어요. ‘확찐자’라고 그러잖아요. (웃음) 지금 그런 형편이고. 그리고 지금도 모든 활동을 다 접근하기가, 옛날에 활동하던 생각만 나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 가족들의 생활에도 변화가 있었는지요?

저는 딸 하나, 밑에 아들 있는데, 딸은 저 부산에 시집가 있고, 아들은 지금 대구에 군의관으로 가 있어요. 병역 판정관으로 있는데, 아들도 결혼해서 지금 제 손녀까지 봤고. 집사람하고 둘이서 살고 있어요. 가족들이 다 따로 살죠. (웃음) 네 식구 밖에 안 되지만 다 모이는건 1년에 서너 번 정도 밖에 안 돼요. 물론 따로 따로는 보고. 내가 토요일 날 갔다가 일요일 날 오기도 하고 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 식구들은 아예 안 보는 걸로. 아예 조심할 수 밖에 없어요. 나도 그렇고 다들 코로나 걸리면 치명적이니까.

### 미추홀구의 자랑거리를 소개해 주세요.

문화 쪽은 문학산 교육 강사로도 좀 활동을 하다보니까. 미추홀구에 아주 옛날부터 사람이 살았잖아요. 선사시대부터 살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천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천의 근본이고. 문학산 자체는 많은 문화유산, 설화 같은 게 있는 역사의 본연? 역사의 성지. 문학산이

인천 역사의 성지죠. 그리고 선사시대를 보면 고인돌부터 삼국시대 비류백제(沸流百濟), 또 조선시대의 지금도 남아있지만 향교(鄕校)라든가. 우리 미추홀이 인천의 뿌리거든요. 흔히들 인천에는 구심점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거를 쭉 주민들이 알고 나면 인천의 구심점이고 뿌리가 되는 것이 이 미추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될겁니다. 그런데 요즘 개발이 한창 되고 있는데, 잘 하는 외국처럼 하면 좋겠지만, 잘못하다가 슬럼화되고 그러면 그게 제일 안타까운 일이죠. 아무래도 지금 있는 그대로 나름대로 장점을 잘 살려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을을 내가 가꿔 나가면 아마 살기 좋은 마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추홀구도 그냥 새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살펴보면 꽤 좋은 마을이 될 거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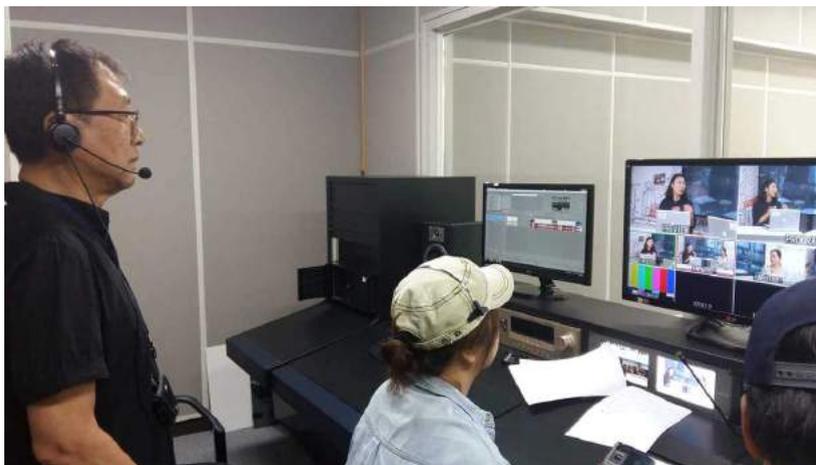
### 미추홀에 대한 평소 생각

제가 생각할 때 인천이란 동네가 토박이는 많지 않고 워낙 외지 사람들이 많은 거 같아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이북에서 왔기 때문에. 인천에 대한 정체성? 그 자체가 좀 부족한 거 같아요. 그냥 살다 가는데 아니면 살면서도 내가 그냥 살아가는 데지 여기서 '내가 인천 사람이다.' 외국 같으면 '나는 뉴요커,' 이런 식으로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 같지는 않고. 그런데 요즘 다 세태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타할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래도 인천에 살면서 인천에 대한 뿌리라든가 동질성이나 정체성은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것 때문에 저도 강의 다니면서 인천에 대

한 얘기 많이 해요. 꼭 인천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옛날 사진 한 번씩 다 보여주고 이러면서 그럼 재밌어 하더라고요. ‘아, 내가 살던 데가 옛날엔 이랬구나.’ 하면서. 아무튼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우리 학산문화원은 모든 프로그램이 잘 발전해 가고 있어요. 특히 제가 잘 알 수 있는 게 여기서 활동하는 분들도 많이 알다 보니까, 또 내가 촬영도 하다 보니까. 정말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는 거, 난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프로그램 자체를 주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것도 일회성이 아닌 계속 연관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게 난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지금 같이만 계속 해나간다면 정말 우리 미추홀구의 문화에 큰 보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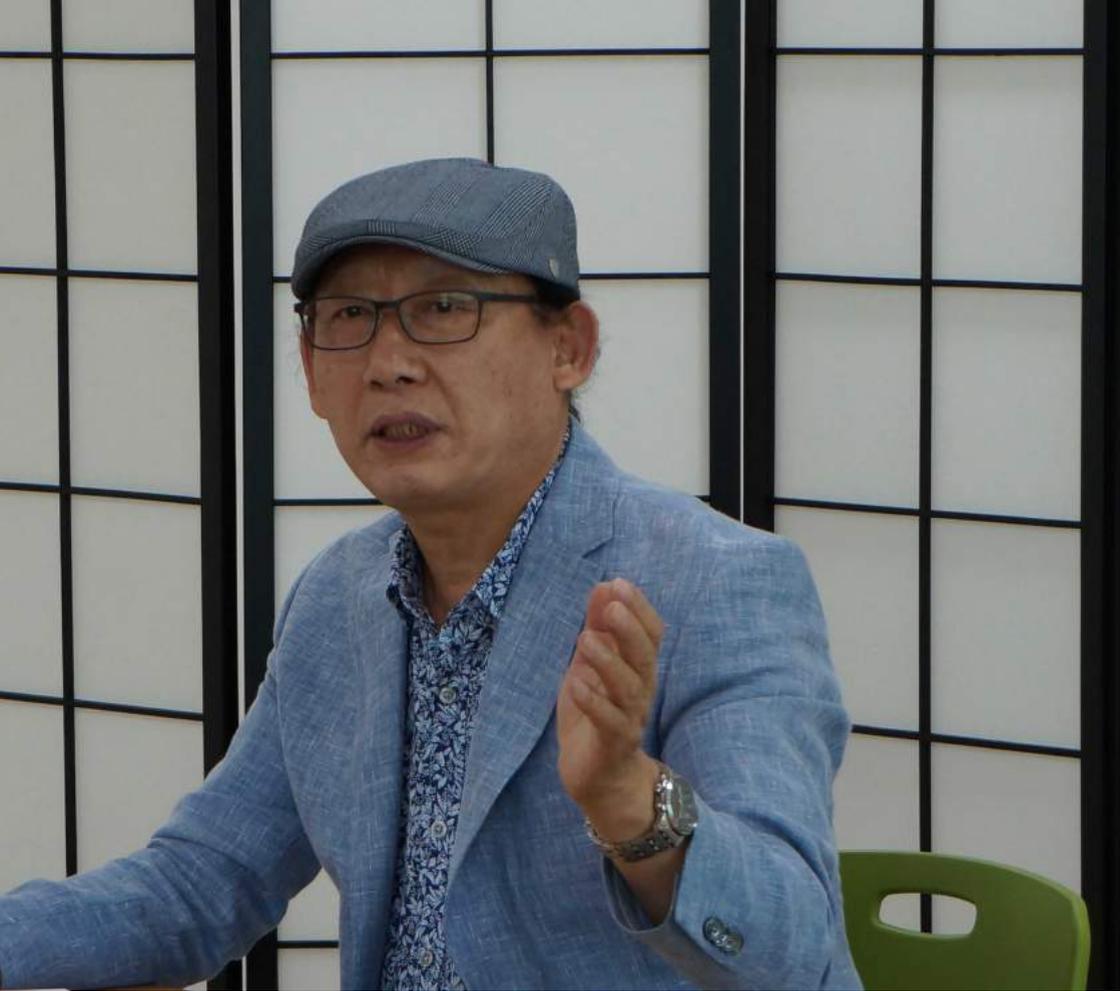
인천시 마을만들기 컨퍼런스 강연 모습



미추홀TV 생방송 진행 모습



마을 골목탐방에서 해설하는 모습



## 나의 지난날 영화이야기

- 구술자 : 허경구(사진활동가, 1956년생)
- 면담자 : 손동유
- 면담일시 : 2020.9.25.(금) 오전 11시
- 면담장소 : 미추홀학산문화원

## 나의 지난날 영화이끼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56년생이고 영화 쪽 일을 오랫동안 했고요, 최근에는, 사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진 찍는 전문가 과정을 공부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한 몇 년 더 배워야 될 거 같더라고요.

작년에 한 번 시민기록단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올해도 또 문자가 와서 동네에서 하는 거니까 한번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좀 잊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록을 남기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옛것을 좋아하고 갖고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사용하던 공중전화 카드를 제가 많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걸 보면 각각의 상호도 있고 그림도 있고 이래서, 전부 다 각각이기 때문에 좀 취미삼아 모으다 보니깐 그렇게 된거죠. 그리고 88올림픽 때 올림픽 복권이 한정적으로 한 300회 정도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거를

1회부터 끝번까지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표구를 해갖고 병풍으로 여덟 쪽짜린가 쪽 돼서 그거 하나 있어요.

## 미추홀에서의 최근 일상을 소개해 주세요

저는 여기 미추홀학산문화원 헬스를 사용하곤 했는데, 평소에 우리 삶의 질이 참 좋아지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운동 같은 것도 못하고, 또 생업에도 지장이 생겨서 수입에 차질이 생겼지요. 저 같은 경우는 원료 수입을 받는데,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공실이 많이 생겨서, 손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 미추홀구가 좋다 그러더라고요. 인천 하면 미추홀이고 제일 오래됐고 문화자원도 많고 좋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우리 동네가 참 좋습니다. 걱정이 있다면, 너무 획일적인 건물, 아파트 숲이 되고 있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주거가 모자라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좀 아쉬움이 많고, 계속 그렇게 된다면 교통도 엄청 안 좋아질 거 같고, 그런게 걱정입니다.

## 예전에 활동하시던 영화분야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화배급 쪽 일을 했는데, 옛날과 비교하면 엄청 바뀌었죠. 그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이 영화를 배급하는 과정이 서울, 대전, 부산, 광주 그 다음 경강(경기도, 강원도)으로 다섯 개 구역으로 나뉘지요. 그렇게 해서 그 쪽으로 각 그 다섯 개 권역에서 판권을 사면 그 판권 산 데서 다

시 자기 판권을 산 사람들이 재분배를 해서 수익 구조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1990년대 초에, 외국인 직배 회사들, 유아이피(UIP)나 워너 브라더스(Warner Brothers)나 컬럼비아(Columbia Pictures), 월트 디즈니(Walt Disney) 이런 데서 들어와 갖고 직접 1대 1로 상대해서 극장하고 상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기 이전에는 예를 들어 서울에 제일 큰 대한극장 이런 데서는 좋은 프로 자기가 하나 독점하면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할 수 있었는데, 직배(直配)는 그렇게 안 하고 대한민국 동시에 그냥 다 개봉시키면 어느 극장이든 간에 틀게 되죠. 그런 시절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해서 일정 기간 딱 지나면 비디오로 딱 판권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많이 바뀐 게, 옛날엔 영화관에 가면 영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필름 돌리는 데죠. 필름이 대개 35mm, 70mm 이렇게 돼서 35mm로 많이 썼는데. 분량이 대개 많으면 한 120분 정도, 좀 길면 140분. 아주 긴 거 벤허 같은 건 한 세 권짜리도 있는데. 1권이 영화 1시간 분량이에요. 그렇게 영사기기로 한 영화를 돌리면 대개 한 번 감기는 부분이 약 한 시간 정도, 근데 그걸 대개 두 개를 돌려요. 일본 말로 기리깡이라고 하죠, 이렇게 또 철커덕 넘어가는.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씨디(CD)로 해요. 그러니까 그 영사실이란 존재가 지금은 없어요. 그렇게 된지가 한 5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씨지브이(CGV)나 롯데시네마 이런 큰 회사들이 다 점유하게 됐죠. 조그만 영화관은 되질 않고 그쪽 그룹에 끼어야 영화 일을 할 수 있게 된거죠.

예전에 영화 배급하던 때를 생각해 보면, 영화를 제작을 하면 제작

사한테 판권을 구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고 우리가 얼마 금액을 확보를 해서 5개 권역에 판매를 하는 거죠. 다른 회사들과 경쟁도 하고, 전국적으로 일을 했죠. 그때 전국의 극장 초대권도 많이 수집을 했어요. 1990년대 초반에는 직배사들이 들어왔죠. 지금은 영화관도 다 없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로 보면, 국도극장, 스키라극장, 중앙극장, 단성사, 명보, 허리우드 이제 다 없어졌어요. 계림, 청량리 오스카 다 없어졌죠. 그 옛날에는 개봉관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영화를 개봉을 하면 큰 극장에서 일단 개봉을 해요, 좌석 수가 많은 데서. 거기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손님 없으면 그 밑에 좀 작은 극장으로 내려 보내요. 그 극장에서 좀 싸게 내려 보내죠. 처음에 예를 들어서 1,000원이면 500원이나 400원에 다시 사서 상영해서 수입을 내는 거죠. 동시상영관도 있어서, 한 프로만 할 수도 있지만 동시 상영이라는 건 에이(A)하고 비(B) 두 개를 하는 거예요, 에이(A) 끝나면 다시 비(B)를 하고. 그러면 손님들이 볼 때 일정 요금을 내고 두 개를 볼 수 있으니깐 또 좋아할 수도 있다 싶어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걸 보러 오는 경우도 있죠. 서대문 극장, 미아리 대지극장 같은 건 지금은 없어졌고, 신영극장을 있을 겁니다. 신촌로터리에 신촌아트라고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없어요.

**인상깊게 기억하고 있는 일화를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충북 영동인데, 영동에서도 완전히 시골이에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갈 때 시험 봐서 갈 때 거든요. 근데 그 영동중학

교라는 데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여자들 있는 데는 못 갔고, 시골 촌놈이니까. (웃음) 그래서 오전 4교시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있고, 점심시간 끝나고 다시 두 과목 시험을 보는데. 밥을 먹으러 가니까 영동중학교 시험 보고, 영동여자중학교도 시험을 봐서 식당마다 여학생들이 짹 차가지고 저는 용기가 없어가 못 들어가고 쪽 한참 내려가서 어디 식당가서 밥을 먹고. 그 당시만 해도 시험 본 시험지를 훔쳐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데 식당가서 밥을 먹고, 식당 주인도 자기 아들도 시험 본다고 해서 같이 시험지도 맞춰보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시험장에 오니까 시험이 이미 시작 된 거예요. 그때는 시계도 없을 때라, 아이고, 큰일 났죠. 근데 그 당시에 300명을 뽑는데 한 사백 몇십 명이 응모를 해서 백 몇십 명이 떨어져요. 우리 시골에선 교장 아들하고 내가 딱 들어서 영동중학교 응시를 했어요. 그러니 시험을 다 잘 봐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됐으니까, 막 울었어요. 울어도 할 수 없는 거지. 그래갖고 한 1주일인가 후에 발표 날 있는데, 수험번호가 제가 302번이야. 잊어먹지도 않아. 제가 붙었어요, 그 교장 아들은 떨어지고. 그 순간이 가끔 기억나요. 공부는 뭐 시골에서 잘하는 건지 몰라도 제가 6년 동안 반장을 했어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웃음) 그리고는 고등학교 진학할 때 서울로 왔는데, 형이 서울에 있어서 같이 지취를 했어요. 근데 그 때 방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되면 돈을 많이 올려 달라고 하는거예요. 저는 시골의 농부의 아들이니까 돈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그 당시 돈을 벌 형편도 못되고. 당시 면목동 어디 방을 5만원 이면 방을 얻었어요, 5만원. 그런 방을 구해서 한 1년 사는데 집이 경매

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학교 갔다 오니까 내 책상, 그 짐이 다 길거리 나와 있는 거야. 그 당시엔 어떻게 저항할 줄도 모르고 그냥 쫓겨났죠. 시골에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니까 혼났죠. 그 이후로 제가 부동산 공부를 개인적으로 좀 많이 했어요. 그 이후로는 안 당했어요. 첫 집을 아파트를 살 때도 나 혼자 등기 다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은 안 당해요, 그런 경험이 있었고. 또 조금 살다보면 또 방세를 올려 달라 그러면 돈이 있어야지. 돈이 없으니까는 제일 싼 데 그 당시에 삼양동이니 이런 데가 좀 변두리 쪽으로만 이사 다녀가지고 지금도 초본을 때면 한 세 페이지 나와요. 이사 간 데가 하도 많아갖고. 옛날에 그렇게 산 기억이 나네요. 전세니까는 수리도 안 해주고 그러면 내가 도배도 해서 들어가고, 그 당시만 해도 콩기름 발라갖고 방바닥 도배도 해보고 남의 집이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것도 다 해봤죠.

그리고 저는 군생활이 참 힘들었어요. 남자들 군 생활 얘기하면 한도 없지만 간단히 얘기한다면, 그 특전사로 차출이 되는 바람에. 복무하는 3년간 힘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훈련도 힘들고, 고참들한테 매일 맞는 게 일과고 매일 기합이고 그러니까 엄청 힘들더라고요. 특전사는 비행기를 타니까 비행기 타다가 떨어져서 죽는 경우가 많고. 낙하산이 안 퍼져갖고 죽는 경우도 많고.

##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여기서 살고 있고 애들 셋은 서울살아요. 2녀 1남인데, 1녀만 결혼했고, 아직 1녀 1남은 아직 미혼이에요. 요즘 결혼을 다들 늦게 하

니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꾸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부담 가질까봐. 그래도 다들 직장다니니까 걱정은 좀 덜하죠. 저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실수를 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살자, 그런 식으로 항상 이야기 합니다. 실수하지 말고, 남한테 피해도 주지 말고, 원칙적으로 좀 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에게는 그냥 뭐 “편안한 아저씨”로 기억되면. (웃음)



최근에는 사진 전문가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수집품1 - 극장의 영화 초대권



수집품2 - 영화 필름기, 소형영사기



수집품3 - 담배갑과 팔각성냥



# 미추홀, 안부를 묻다

# 삼강

2020년 12월 30일 발행

펴낸이 정형서

펴낸곳 인천광역시 미추홀학산문화원

기 획 인천광역시 미추홀학산문화원  
협동조합 아카이빙 네트워크 연구원

디자인 스튜디오수집



인천광역시 미추홀학산문화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안하로126

Tel. 032-866-3993~4

[haksanculture.or.kr](http://haksanculture.or.kr)

ISSN 979-11-968891-4-2

ISBN 979-11-968891-0-4 (책표)